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031-257-1841

제199호 2021년 06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93-0445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7-3 (영통동), 104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64 (도당동)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외국인주민 업무에 유연하고 신속한 통역서비스 지원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월 3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 글로벌 통역인력풀' 선정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흥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은 다문화도시로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역인력풀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 글로벌 통역인력풀은 총 15개 언어 300여명으로 운영된다. 김영의 기자

확산하는 한국 사회 '가족 다양성'... 가사일은 아내가 여전히 많이 해

한국 사회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혼 출산'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가족 형태의 다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하 가구의 비중은 2015년에는 44.2%였다. 5년 만에 17.9%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1.3%에서 지난해 30.4%로 눈에 띄게 늘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가족'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 25.3%, 29.1%로 2015년에 비해 1.6% 포인트, 5.9% 포인트, 7% 포인트씩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20대의 응답 결과는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부의 가사 수행에서 아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은 여전했다. '식사 준비와 청소 등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과 교육'을 아내가 하는 비율이 각각 70.5%와 57.9%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물 챙기기(83%), 자녀 학습 관리(74.9%) 등 자녀 돌봄을 아내가 도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29세 이하 부부는 가사노동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부부 역할 분담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 것이다.

1인 가구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53%로 남성(47%)보다 많고, 연령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비중이 58.1%에 달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20~40대의 경우 학업 취업 사유가, 50~60대는 본인의 이혼이,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를 반영한 가족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국어 16면, 베트남어 25면, 러시아어 43면>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16, 26, 28, 4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1, 15, 17, 19, 23, 24, 31, 45 일본어(Japanese) 日本語 9, 4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17, 46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5, 6, 21, 27 네팔어(Nepali) नेपाली 25 몽골어 39 영어(English) 1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 2, 16, 23, 25, 43 생활정보 Information 20, 30, 43 도서관 Library 8, 31, 32, 33, 34, 47 복지 Welfare 11 교육 Education 16, 39 요리 Cook 47 노동 Labor 25 육아 Infant Care 13, 19, 32 기고 Column 24 행사 Event 12 나의 학습 My Study 2, 9, 27, 28 한국어 Korean 29 보건 Health 3 취업 Job 3, 35 창업 Foundation 37 금융 Finance 11, 46 주거 Residence 5, 6, 24, 26, 45 운전면허 4, 9, 17, 21, 48



공유재산 사용, 면밀하고 심도 있는 조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2곳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건물 중 1층과 2층(연면적 292.92㎡)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면밀하고 심도있는 안전심사를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은 먼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

하여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민간건물을 각각 임차하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사무공간과 온라인 디지털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될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으로 이동하여 건물의 적합성,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도민들의 접근성 등을 파악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해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안전심사 과정에서 무상사용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21일까지 모집

교육비 무료...현직 크리에이터 멘토링 및 특강 등 지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의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다문화가족 등의 영상 콘텐츠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참가자 30팀을 모집한다.

‘크리에이터’란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말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사업 대상은 14세 이상 다문화가족 구성원, 고려인 및 귀화자로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 재·휴학생 혹은 사업장 사업자·재직자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1일 오전 11시까지 개인 혹은 최대 3인이 팀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참가자가 있을 경우 팀원 중 1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고려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30팀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크리에이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

작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수업은 VOD 시청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 집중도 높은 양방향 교육으로 설계됐다. 또한 콘텐츠 기획, 촬영, 저작권, 편집 교육 등 1인 크리에이터 활동 관련 전반적인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직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컨설팅과 멘토링 등도 제공한다.

교육비는 무료로, 보정금 10만원은 교육 70% 이상 수료 시 전액 환급한다. 별도로 창작활동비도 약 1개월간 전문 크리에이터 강사진의 온라인 교육을 받고, 3개월간 영상 3편 제작 시 각각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문화인 눈높이에 맞춘 수준별 교육과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다문화 1인 창작자의 활동 기회를 늘리겠다”며 “제작된 콘텐츠가 도내 다문화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선한 영향력 전파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국 문화 소개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만 하다. <중국어 28명, 베트남어 40명, 러시아어 27명>

이지은 기자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와 정담회 시군과 협력 소통 통해 문제 해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목)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과 더불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이하 경기여방협)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여방협의 김정숙 상임대표, 김양순 이정민 공동대표, 최연화 회계가 참석하였고, 경기도 여성정책과 김미성 과장과 담당 주무관, 입법조사관 등이 배석하였다.

경기여방협 측은 이재명 지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현행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원시 일률적으로 9호봉에 맞춰서 지원함에 따라 경력자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성폭력상담소의 인력 증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조사 등을 통해 임금 지원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등 3개 기관,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상담 문의나 법률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와 나눔과 소통으로 화합해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고양다문화나눔봉사단’ 활동



지역사회와 나눔으로 소통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있다. 결혼이민자 25명이 참여하고 있는 ‘고양다문화나눔봉사단’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양다문화나눔봉사단’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됐으며, 봉사단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 다문화가족의 자존감 및 자긍심을 높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은 센터 및 외부에서 진행된다. 센터는 ‘고양다문화나눔봉사단’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 봉사 대상 및 단체를 통한 소개와 홍보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외부단체와 협력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과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 및 제공기관 파악,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한 주기적인 문자 알림서비스, 자조모임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선출, 1365 자원봉사센터 가입을 통한 자원봉사시간 등록과 활동 인센티브 부여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봉사 발굴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고양다문화나눔봉사단’은 월간회의를 연 6회, 6시간 진행하며 봉사원 교육을 연 2회, 4시간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연 10회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여름철 식중독 주의 다문화가족도 예방수칙 준수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세균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 ‘캠필로박터 제주니’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닭, 소, 오리 등 동물 내장에 존재하며 털 익은 닭을 섭취하거나 닭 손질 시 교차 오염된 채소 및 과일로 인한 식중독에 쉽게 감염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료 구입할 때 또는 조리 전 생닭과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게 주의 ▲생닭을 냉장고 보관 시 밀폐용기에 넣어 맨 아래 칸에 보관 ▲생닭 세척 시 튀긴 물이 생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튀지 않도록 주의 ▲칼 도마 구분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식재료가 변경될 때마다 손 씻고 세제로 세척하기 ▲닭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할 것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 다문화가족 취업도 국비훈련으로 준비해요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유혜림)는 청년과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국비 지원 훈련을 6월부터 시작한다.

교육 과정은 ▲무역실무자(글로벌 FTA 무역 마케팅) (6.22-9.3) ▲호텔객실 코디네이터 양성(7.20-9.6) ▲빅데이터활용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마케팅(7.21-11.8) ▲취·창업컨설턴트 양성 과정(8.17-11.19)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모집 대상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로서 과정별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kycenter.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 신청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자가 선발된다. 교육생은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지원 등 성공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는 물론, 취업 후 특화된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국비지원 전액무료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이 연간 수시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 사업 등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기획팀(☎031-912-8555)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에도 마음의 여유 찾기를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고양시(시장 이재준)의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로 잠시 즐거움을 만끽하자.

고양시는 ‘찾아가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를 8월 말까지 개최한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발코니 콘서트는 지난 9월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에서 첫 번째로 열렸다.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고양시립합창단, 고양버스커즈 외 ‘2021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주세요!
 - 예배 외 각종 모임 등은 자제하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집에서 예배드리기
-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손소독 필수 (예배당 입장 전 손소독 필수)
 - 발열체크 (예배당 입장 전 발열체크 하기)
 - 마스크 착용 (교인 출입과 예배시 마스크 착용 필수)
 - 기침예절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안전거리(통상 2m)를 유지해 주세요!
 - 예배드릴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기
 - 성도님들간 대화도 안전거리 유지하기
- 교회 식사모임은 자제해 주세요!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가. 사업명 :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 2018~2021년 경기도, 시·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기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다. 지원규모 : 2,320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시스템개선 비용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지원
마. 신청기간 : 2021.06.09(수) ~ 06.25(금)
바.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사. 신청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교육비 W0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지원 교육

여성 누구나 (여성 1명당)	고양시 여성	경기도 여성	여성 누구나 (여성 1명당)
무역실무자 (글로벌 FTA 무역마케팅)	호텔객실 코디네이터 양성	빅데이터활용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마케팅	취·창업 컨설턴트 양성

모집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로서 과정별 지원자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특점 : 직종별 취업연계, 사후관리, 채용정보제공, 이력서·요기소·게시·요연성컨설팅, 새일여성인턴제 우선연계, 실업급여수급 구직활동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최소액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생계지원금 함께 제공
지원내용 : 취업 성공의 꿈을 대비하세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대화본원에서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법...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이 편리

신체검사-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거쳐야, '2종 보통 오토' 면허가 가장 쉬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더 많아진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운전면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을 합격해서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

면허 등 3종류가 있다. 다만 응시자격과 시험 유형은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 응시자라면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미리 알아두고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함께 교통법규 및 질서외식 준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말한다.

시험을 치려면 먼저 어떤 종류의 면허를 따려고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제2종 면허는 10인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하다. 만약 10인 이상 승합차나 트럭을 운전해야 한다면 제1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제1종 면허는 크게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세 가지로 나뉜다. 1종 대형면허는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보통면허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면허는 크게 보통과 소형으로 나뉜다. 2종 보통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일반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등이며 2종 소형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이다.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1종보다 훨씬 쉬운데 자동차 크기가 작고 또 '오토' 기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2종 오토 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

기어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특히 해외에 나가면 수동 기어 차량이 더 많은 국가가 적지 않아 국제면허 취득, 해외 체류 시 주의해야 한다.

1종 면허를 취득했다면 당연히 2종 면허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신체검사, 2차는 학과시험, 3차는 장내기능시험, 4차는 도로주행시험이다.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장내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문화가족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요즘에는 내국인들도 대부분 운전전문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도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중국어 48면,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21면, 일본어 9면, 태국어 17면>

송하성 기자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고양시, 진로 탐색 및 시정업무 체험의 기회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97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진로 탐색 및 시정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 20명과 일반 선발 77명을 합해 총 9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연수생들은 시청, 도서관, 고양시어린이박물관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 자료실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주 5일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5시간으로, 배치부서의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임금은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10,140원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모집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학·휴학생(해외대학교 포함)이며, 대학원생과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수생은 전산 무작위 자동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 결과는 오는 23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고양시청 청년담당관(☎031-8075-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아이돌봄서비스 3종 이벤트

이벤트 1

- 내용** "첫이용" 감사선물 모두 증정 (1만원 CJ 기프트카드)
- 대상** -21년 처음 (7월이내) 단거서비스 이용아동, 예년 이용자 중에도 올해는 처음인 이용아동, (가-라형) 이용모든 아동
- 기간** 2021년 6-9월

이벤트 2

-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례지원 **비용 할인**
- 대상** 신규이용 대상자 ("첫이용" 감사선물 받는 대상자)
- 조건** - 평일 08:00~16:00 이용아동, (라형) 양육공백 사유 증명서류 필요, (가-다형) 증명서류 불필요
- 비용** (기본형) 1,506~10,040원 > 1,004 - 6,024원, (종합형) 4,516~13,050원 > 4,014 - 9,034원
- 기간** 2021년 7-9월

이벤트 3

- 내용** 선물 1/2/3 중 선택 증정 (거꾸로 외 우선2종/텀블러/LCD전자보드)
- 대상** -신규이용자와 기존이용자 모두 가능, -기본형+종합형 각각1회 이상 이용아동 (기본형: 등하원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종합형: 아동관련 세탁, 청소, 음식 1회)
- 기간** 2021년 4-9월

아이돌봄 서비스란?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4개월~13세)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

- 이용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지원유형 판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국민행복카드 발급 센터 전화 및 신청
- 문의** 고양시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969-4064 / 4028, <http://idobom.go.kr>

부동산 활황기, 다문화가족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제도 활용...그래도 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준비해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황이다. 현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 서울 아파트값은 약 87% 급등했다고 한다. 경기도도 이와 비슷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집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된다.

돈이 없거나 아파트를 사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다문화가족들도 아파트 구매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주택청약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어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국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보통 2년 이상 저축을 하고 청약자격을 얻는다.

이런 어려움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택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공급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문화 특별공급도 있다. 다문화가족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므로 정부가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특별공급 세대수는 보통 2세대 정도에 그치므로 경쟁을 해야한다.

같은 특별공급이라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는 7월에 공고가 날 예정인 경기도 '안성아양 B-1블록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10년이상 복무군인,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등은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을 6회 이상한 청약통장이 필

요하다. 이 조건만 채우면 통장 저축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안성아양 B-1블록 공공분양주택'이 다문화 특별공급에 요구하는 또 다른 조건은 집이 없는 무주택일 것과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두자. 특별공급은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인 것 뿐이지 아파트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굳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에는 특별공급에 도전해 볼만 하다. <중국어 26면, 베트남어 24면, 러시아어 5면, 일본어 45면, 태국어 6면> 송하성 기자

Период оживления на рынке недвижимости, апартамент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пробуйт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особ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ынок недвижимости Кореи стремится сильно растет, чем когда-либо. За четыре года правления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ыросли на 62%, а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в Сеуле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на 87%. В Кёнгидо похожая ситуац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которых районов с плохими жилищными условиями,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выросли почти вдвое. В случае резкого роста цен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деньги зарабатывают только те, кто владеет домом.

Люди, у которых нет денег или которые не купили квартиру,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ибыл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таких лиц возникает чувство относительной бездоленн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сред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так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желание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ы. Как правило, чтобы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в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истемой, которая присваивает квалификацию лицу,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накопительный счет на основе системы и оплачивать его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пользуются данной системой и обычно производят накопления в течении двух лет и более и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по системе.

Не проходя этих трудностей, можно сраз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жилья. И поможет этому программа «особ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грамма «особое обеспечение» - это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лицам, нуждающим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без конкуренции с обычными претендентами, получить право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К таким лицам относятся: молодёжь,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и пожилые родители.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жилищ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до 10% от общего предложенного жилья может быть выделено в рамках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Есть такж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особое обеспечен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также относятся к слою населения, нуждающим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зволяет им сразу же получать право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ы.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соб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еобход

имо на два поко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конкуренцию.

Даже для того же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ыв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истемой, которая присваивает квалификацию лицу,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т.

В случае с «жилым кварталом B-1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Ансонг Аньянг, Кёнгидо», о котором намечено объявить в июле, жителям, чьи дома были снесены, инвалидам, национальным героям и т. д. не требуется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истемой, которая присваивает квалификацию лицу,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Однако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ыходца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прослужившим более 10 лет, ветеранам, работникам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МСП)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лужащим необходимо бы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 иметь накопительный счет,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оплачивать в течение 6 месяцев и больше. В случае выполнения данного условия,

накопительная сумма не буд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я.

«Жилой квартал B-1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Ансонг Аньянг, Кёнгидо», Есть еще одно услови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соб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 это не иметь соб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и проживать по одному адресу со своим(ей) супругом(ой) не менее 3 лет.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необходимо уже сейчас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системе, которая присваивает квалификацию лицу,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ным условиям,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Особое обеспечение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даёт право на снижение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Поэтому, когда рынок недвижимости не стабилен,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ть квартиру по особ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Однак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цены на квартиры растут, как сейчас, стоит попробоват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соб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한글 기사 상단> 장울가 기자

Понятие «Разновидность типов семей»,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днако по-прежнему супруга выполняет много работы по дому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исло семей,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или двух человек,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растёт и признание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семей, таких как «рождение не в браке» и «бездетност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удущем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расширение разновидностей типов сем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объявило результаты "Четверт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ре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емьи". "Исследование ре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емьи" - это утверждённа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статистика,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води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вопрос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и используемая при разработке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И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хватив всех членов домохозяйст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лет и старш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997 семей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результате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о выявлено то, что общее число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е из одного и двух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о 62,1%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отношение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не больше чем из двух человек, в 2015 году составляло 44,2%. За пять лет число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7,9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соотношение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

личилась с 21,3% в 2015 году до 30,4%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частно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заметно принятие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семьи. Соотношение отметивших: «не состою в браке», «сожительство без брака», «бездетная семья» составило 37%, 25,3% и 29,1%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то на 1,6%, 5,9% и 7% пунк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5 год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пояснил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отвечающих в возрасте 20 лет повлияют на изменения типов семьи и жизненном цикле в будущем».

Однако по-прежнему сохранялась тенденция к тому, что супруга берёт на себя большую долю домашн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роцент жён, выполняющих «домашнюю работу», такую как: «приготовление еды и уборка» и «воспитание и обучение детей», составили 70,5% и 57,9%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частности, в случа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возрасте до 12 лет, супруга несё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заботу о детях, например, подготовка необходимы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для занятий (83%) и управление обучением детей (74,9%).

Однако среди пар в возрасте до 29 лет 56,4%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супруги равноправно выполняют работу по дому, это более чем половина опрошенных. Из тех, кто ответил, что они одинаково участвуют в воспитании и обучении детей, соста-

вили 49,2%, что близко к половине респонд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традиционное разделение ролей для супругов меняется в сторону более младше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лового соотношения в семьях,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женщины составляли 53%, это больше чем мужчины (47%), а пожил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лет и старше составляли 61,1%. Кроме того, процент лиц, зарабатывающих менее 2млн. вон в месяц, достиг 58,1%,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низком уровне дохода в общем. Осно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проживания в семье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были: учеба и работа для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0 лет; развод среди лиц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до 60 лет и смерть одного из супругов для лиц старше 70 л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планирует усилить семейну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ая отражает жизненный цикл каждого из типов сем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быстр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овых типов семьи, а также изменением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Во-первых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оддержку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домохозяйств, состоящих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молодежь, людей среднего 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ов, а так же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ы поддержки се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한글 기사 1면〉

장울가 기자

ธุรกิจ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อุปทานพิเศษของอพาร์ทเมนต์ ครอบครัวความ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ตลาด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ของเกาหลีเฟื่องฟูมากกว่าที่เคยในช่วง 4ปี ของรัฐบาลปัจจุบัน 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ทั่วประเทศเพิ่มขึ้น 62% และ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กรุงโซลเพิ่มขึ้นประมาณ 87% คอยงก็โดก็คล้ายกัน

ยกเว้นบางพื้นที่ที่มี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ที่ไม่ดี 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เพิ่มขึ้นเกือบเท่าตัว ถ้าราคาอสังหาขึ้นเร็วแบบนี้ คนมีบ้านเท่านั้นที่จะหาเงินได้ ผู้ที่ไม่มีเงินหรือไม่ได้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จะไม่ได้รับผลกำไรจากการลงทุน ดังนั้นจึงรู้สึกว่าคุณก็ตกกันจากญาติ

ด้วยเหตุนี้ 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จึงเพิ่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ด้วย โดยทั่วไป ในการ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เกาหลี คุณต้องใช้ระบบ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อยู่อาศัย แต่คุณต้องสร้าง 'บัญชีออมทรัพย์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อยู่อาศัยที่ครอบคลุม' และชำระเงิน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นาน ชาวเกาหลีส่วนใหญ่ใช้ระบบนี้เพื่อประหยัดเงินมากกว่าสองปีและรับคุณสมบัติ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

เป็นระบบการจัดการพิเศษที่ช่วยให้คุณ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ที่อยู่อาศัยได้ทันทีโดยไม่ต้องผ่านปัญหาเหล่านี้ ระบบอุปทานพิเศษเป็นระบบที่ช่วยให้สามารถขายอพาร์ทเมนต์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แข่งขันกับสมาชิกทั่วไปเพื่อความมั่นคงของที่อยู่

อาศัยสำหรับผู้ที่ต้องการนโยบายและการพิจารณาทางสังคม รายการอุปถัมภ์แบ่งออกเป็นคู่บ่าวสาว เด็กหลายคนและผู้ปกครองสูงอายุ ตาม "กฎการ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 ของพระราชกฤษฎีกากระทรวงที่ดิน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 1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อุปทานทั่วไปอาจได้รับการจัดสรรให้เป็นอุปทานพิเศษ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อุปทานพิเศษจากหลาก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สำหรับ 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อีกด้วย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เป็นกลุ่มที่ต้องพิจารณาโดยด้วย ดังนั้น รัฐบาลจึงอนุญาตให้พวกเขาได้รับอพาร์ทเมนต์ทันที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ครัวเรือนสำหรับอุปทานพิเศษพหุวัฒนธรรมมักมีเพียงสองชั่วอายุคนเท่านั้น การแข่งขันจึง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แม้กระทั่งสำหรับอุปทานพิเศษเดียวกัน แต่ก็มีบางกรณีที่ต้องสมัครสมาชิกสมุดคู่ฝาก

ในกรณีของ 'Anseong Ayang B-1 Block Public Sale Housing' ใน Gyeonggi-do ซึ่งมีกำหนดจะประกาศในเดือน กรกฎาคม ผู้อยู่อาศัยใน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ผู้พิการ ผู้มี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 ฯลฯ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มีบัญชีสมัครสมาชิก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ผู้แปรพักตร์ชาวเกาหลีเหนือ บุคลากรทางทหารที่รับใช้ชาติมากกว่า

10 ปี ทหารผ่านศึก พนักงาน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SMEs) 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 ฯลฯ จำเป็นต้องมีบัญชี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มีการสมัครใช้งาน 6 เดือนและ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 6 เดือน . ตราใบที่คุณปฏิบัติตามเงื่อนไขเหล่านี้ ไม่สำคัญว่าคุณจะออมเงินในบัญชีธนาคารของคุณเท่าไร

เงื่อนไขอีกประการหนึ่งที่ 'Anseong Ayang B-1 Block Public Sale Housing' ต้องการสำหรับการจัดหา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พิเศษคือ คุณต้องไม่มี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อาศัยอยู่ในที่อยู่เดียวกันกับคู่สมรสของคุณเป็นเวลาอย่างน้อย 3 ปี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ที่ต้องการอพาร์ทเมนต์คว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ำหรับบัญชีสมัครสมาชิกตั้งแต่บัดนี้เป็นต้นไป อุปทานพิเศษเพิ่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จองอพาร์ทเมนต์ เท่านั้น แต่ไม่ได้ลด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 ดังนั้น เมื่อตลาด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ไม่ดีขึ้น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ผ่านอุปทานพิเศษ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พุ่งขึ้นอย่างต่อนี้ ก็คุ้มค่าที่จะลองจัดหาข้อเสนอพิเศษ

〈한글 기사 5면〉

이아리 기자

사회복지현장 42개소에 차량 지원

경기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

경기도가 사회복지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42개소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월 11~25일 신청 기관을 모집한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를 지원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승합차 16대 지원에 총 250개소가 신청, 1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승합차 11대, 경차 31대 등 총 42대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 구매비(차량가액의 80~90%)를 지원받으며, 차량별 지원 금액은 승합차

2,200만원, 경차 1,100만원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복지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기관이 발표된다. 심사에서는 기존에 도내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을 우대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해 반응이 너무 좋아 올해 지원 예산을 늘린 만큼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또는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확인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031-267-9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5060 리스타트 아카데미' 운영

고양시여성회관, 재무관리 대인관계 등 교육

고양시(시장 이재준) 여성회관은 5060 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 '5060 리스타트 아카데미' 수강생을 17일부터 모집한다. 고양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5060세대의 바람직한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강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강의 내용은 노후 준비 4대 영역인 ▲재무관리 ▲건강경영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1972년 이전 출

생자이며 모집인원은 각 강좌별 12명이다. 강의는 고양시 여성회관(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wcenter.goyang.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5060 세대 시민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대비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일정	강의 내용	구분	강사명	모집 인원
6월 28일(월) 10:00-12:00	- 은퇴예찬 -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일반 관계	이성원	각 강좌별 12명
6월 30일(수) 10:00-12:00	- 평생연금 프로젝트(사적연금) - 절세 상품과 진연금 테크	재무 재무	김민경	
7월 2일(금) 10:00-12:00	- 2021년 소비 트렌드 - 금융사기 예방	재무 재무	박영미	
7월 5일(월) 10:00-12:00	- 다양한 연금 활용한 노후 준비 - 국민연금, 기초연금 100% 활용	재무 재무	전은경	
7월 7일(수) 10:00-12:00	- 스트레스는 날리고, 웃음으로 날아라. - 성격유형과 대인 관계의 달인	건강 관계	이성원	
7월 9일(금) 10:00-12:00	- 100세 시대 스마트 헬스 - 빙구석 오페라	건강 여가	박영미	
7월 12일(월) 10:00-12:00	- 똑똑한 상속 이야기 - 말만 도움 되는 상속세, 증여세	재무 재무	김민경	
7월 14일(수) 10:00-12:00	- 4차 산업혁명과 여가변화 - 오늘은 어디로 갈까?	여가 여가	전은경	

북한 음식 만들며 맛있는 이야기

고양시, "북한 음식이 궁금해?" 온라인 강습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8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북한 음식이 궁금해?'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1년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보조금 단체인 (사)평화누리가 진행하며, 북한 음식 전문가와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원산 출신 탈북민 요리사 이명애 대표와 초대 손님, 그리고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이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함께 북한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양강도 출신 탈북자 최정호 씨의 진행이 더해져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날 초대 손님으로 참여해 숨겨둔 요리 실력을 뽐냈다.

이 시장은 북한 전통 요리 '배속김치'와 '강냉이국수'를 만들었다. '배속김치'는 배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백김치를 말아 넣은 것인데,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만찬장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음식이다. 배속김치가 화려한 상류층의 음식이라면 '강냉이국수'는 옥수수면을 활용한 북한의 국민 먹거리라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음식을 만들면서 고양시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을 이야기로 풀어나갔다. 이 시장은 "남북정상 만찬이든, 북미정상 만찬이든 다시 한번 배속김치가 만찬상에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라며, "꼭 막힌 남과 북이 속을 파낸 배속김치처럼 시원하게 뚫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로 진행된다. 첫 프로그램인 1일에는 정범규 청년재단 이사장이 첫 회의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닭껍질 삼색쌈'과 '호박 우메기떡'을 만들며 전 독일대사의 경험을 비취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과정의 어려움을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야기 나눴다. 15일에는 한준호 국회의원도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언감자떡'과 '두부밥'을 만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참여 문의 또는 기타 사항은 (사)평화누리(1800-610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안산그리너스FC(구단주 윤화섭 안산시장은) 1대1 온라인 한국어 무료 수강권 1천장(4천만 원 상당)을 안산시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안산 그리너스 FC는 2017년 창단 이래 안산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K리그 사랑나눔상을 수상해 총 3회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

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그리너스FC는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구단 경영을 위해 안산만의 구단 가치를 확보해 축구단 이상의 비전을 가진 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무더위 날릴 대부도로 오세요” 안산시, 경기바다 여행주간 운영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대부도로 여행지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운영한다.

안산을 비롯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5개 시와 함께하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일상 회복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일상 속 소소한 힐링 여행, 근거리 이동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힐링음악회, 요트 및 서핑 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행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안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풍부한 대부도 및 경기바다에 대한 관심 유발과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직접 온라인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방아머리 해변에서 대부도를 찾아온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홍보관’과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체험하고 생존법을 배울 수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시범 운영 및 경기바다 곳곳에서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 테마여행, 체험상품, 투어상품 등이 여행객을 맞는다.

여행주간이 끝난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바다 체험코스 투어,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 걷기 챌린지, 축제, 해양야카데미, 체험 프로그램,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여행주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경기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행사 및 축제 개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에서 최고의 한국어교육 받아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평일 야간/월.수/20:00~22:00/7.5~9.1) ▲토픽Ⅱ 기출문제 풀이(평일 야간/월.수/20:00~22:00/7.5~9.1)
▲토픽 초급(1급/일/9:30~12:30/7.4~9.12) ▲토픽 초급(2급/일/9:30~12:30/7.4~9.12) ▲토픽 중급(3급/일/14:00~17:00/7.4~9.12) ▲토픽 중급(4급/일/14:00~17:00/7.4~9.12) ▲토픽 고급(주말/일/14:00~17:00/7.4~9.12)이다.

신청은 온라인(<http://fkl.ansan.go.kr>)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 신분 확인 가능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국어교육 관련 문의는 전화(031-481-3297 한국어/ 031-481-3735, 3746 러시아어, 영어/

031-481-3739 중국어/ 031-369-1763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으로 100여개국 8만여명의 외국인이 내국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한국어교육, 통역지원, 상담지원, 의료 및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산에서 세계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나보자.

김영의 기자

안산 중앙도서관 랜선 인문학 ‘K-컬처, 세계를 품다’ 모집

K컬처에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 중앙도서관의 6월 랜선 인문학마당을 신청해보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이지영 세종대 교수의 ‘K-컬처,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의 강좌를 6월 랜선 인문학 마당으로 진행한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BTS’부터 ‘미나리’까지 세계가 인정한 한국 대중문화의 힘과 성공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를 통해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문의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ansan.go.kr>) 031-481-3868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즐겁게 할 유익한 프로그램,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대비반, 자녀성장지원사업, 친환경 살림 생활환경교육 등 진행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대비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한다.

'2021년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대비반'은 초·중·고등 검정고시반이 운영되며 '2021년 제2회 검정고시 학력 취득 시험' 응시(8월 초 예정)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 검정고시반은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선택과목 2개를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중등 검정고시반은 결혼이민자 10명(초등학교 졸업 증명 가능자) 대상이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 1과목이다. 수업은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초·중·고등 검정고시반 모두 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599-1704)로 하면 된다.

#1%나눔재단 후원금 전달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 1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지원해 취업 기회 확대를 돕는 '결혼이민자 검정고시사업'과 자녀성장지원사업 2가지를 진행하는 데 사

용된다. 자녀성장지원사업은 미술심리상담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정서를 완화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살림 생활환경교육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친환경 살림 생활환경교육'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지구 환경의 오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해 배우고 지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1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LED 무드등, EM 가루세탁비누를 통해 친환경 살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전화(031-599-1703)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外国人住民のための運転免許取得法... 運転専門学院で取得に挑戦

다문화가족도 자녀 양육 위해 운전 필요성 커져...2종 오토 면허 취득이 가장 쉬워

多文化家族と外国人労働者も自動車を所有し、運転することが増えている。特に子どもを育てている結婚移住女性は自動車を運転することが多いだろう。

自動車を運転するためには、運転免許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運転免許は自動車などを運転する者が道路交通公団で施行する学科試験、技能試験などに合格して発給される免許のことだ。自動車運転免許の種類は、第1種と第2種、練習運転免許などの3種がある。ただし試験資格と試験 類型は自動車運転免許種類ごとに少しずつ違うので、初めての試験ならば取得を希望する運転免許試験について前もって調べて、試験類型を把握しておくことをお勧めする。

自動車運転免許

自動車運転免許試験は運転者の運転能力とともに、交通法規、秩序意識遵守水準を検証するため

に施行する資格試験を指す。試験を受けるならばまずどの種類の免許が必要かを決める。

第2種免許は10人以下の一般乗用車を運転するために必要だ。もし10人以上の乗用車やトラックを運転するならば第1種免許が必要だ。

第1種免許は大きく分けて大型免許、普通免許、特殊免許の三つだ。1種大型免許はワゴン車、貨物車、建設機械などを運転することができる。1種普通免許は定員15人以下の自動車、乗員定員12人以下の緊急自動車、12トン未満の貨物自動車などを運転することができる。第2種免許は普通と小型に分かれている。2種普通で運転可能な車両は一般乗用車、乗員定員10人以下のワゴン車など。2種小型の場合、125ccを超過するオートバイなどだ。

2種運転免許取得が1種よりはるかに簡単だ。自動車の大きさが小さく、'オート'ギア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もし2種オート免許を取得

したら、手動ギア自動車は運転することができない。

特に海外では手動ギア車両が多いので、国際免許取得、海外滞在時には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1種免許を取得したら当然2種免許に該当するすべての車両を運転することができる。

運転免許試験は全部で4段階だ。1次は身体検査、2次は学科試験、3次は場内技能試験、4次は道路走行試験。学科試験は2種60点、1種70点以上で合格、場内技能試験は100点満点の80点、道路走行試験は70点以上が合格だ。

この過程すべてを外国出身者が一人で学ぶのはたいへん難しい。最近では韓国人も大部分が運転専門学院で資格を取得している。多文化家族も運転免許学院を利用することをお勧めする。

<한글 기사 4면>

아키오 객원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14:30~15:45 장소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주최 법무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제도 개선 앞장”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세계인의 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이사장 신은철)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14회 세계인의 날 정부 포상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너머는 2011년 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실, 방과후 아동돌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노무 및 법률지원을 위한 별별상담소 운영,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등 고려인 동포에게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다는 평

가를 받았다. 특히 (사)너머는 지난 2017년 4세대 동포의 체류 불안 문제를 이슈화하여 세대 구분 없이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려인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최근 (사)너머는 한국사회에서의 고려인 동포 권익의 신장을 위해 동포에 대한 인식 확대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서 고려인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역사특콘서트 등의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시민과 동포 간 상호이해를 늘리고, 고려인 동포 스스로 위대한 독립

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단계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너머 신은철 이사장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고려인 동포에 대한 너머의 지원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미래세대 지원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민 리더십 공로패 수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지역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주민 리더십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주민 리더십 발휘 선정패〉는 성공적인 도내 정착과 지역사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이주민의 인권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주민에게 수여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단아, 위신 무디안셀라게 다야라프느, 구름굽더마하들, THEIN MIN TUN, 페라라헬레세게 이레샤 달라니 총 5명이 공로패를 받았다.

오경석 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19년에도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한국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역사회 어떤 커뮤니티

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찍은 영상을 다른 곳에 보여주면 놀란다”라며 “자기 자리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분들로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분들이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또 코로나19로 올해 행사가 약식으로 진행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곁 이주민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공헌한 것에 대해 몰랐던 이들도 그 당시 영상을 통해 알게 됐다며 감동을 하신다”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연대하고 꿈과 열정을 응원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진 이날 수여식에서는 곧바로 박단아, 위신 무디안셀라게 다야라프느, 구름굽더마하들, THEIN MIN TUN, 페라라헬레세게

이레샤 달라니씨의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구름굽더마하들 경기다문화로타리클럽(국제로타리 3750지구) 회장은 수도권에서 수애틀라는 네팔 인도 음식 전문점 3곳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에 한국에 온 구름 회장은 서울 천호동 옷공장에서 시다(보조)로 일하며 처음에는 월급 20여만원을 받았지만 15시간 이상 일하는 고생을 감내하며 버틴 결과 현재의 코리아드림을 이뤘다.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주변의 내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

수여식 후에는 지난 2019년 프로젝트인 ‘경기도 우리에게 맡겨요’ 영상을 상영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의 기자





Tiêu số tiền mà ai đó bán nhằm sang tài khoản của mình sẽ bị kết tội chiếm đoạt tài sản!



Thay vì người dân đến tận ngân hàng để nhờ nhân viên ngân hàng chuyển tiền mà việc chuyển tiền tự động thông qua cây ATM hay Mobie Banking đã trở thành một thói quen sinh hoạt trong đời sống hàng ngày giúp người dân thuận tiện rất nhiều trong việc chuyển tiền mà không

phải đợi chờ hàng giờ đồng hồ ngoài ngân hàng mới đến lượt làm việc của mình. Tuy nhiên dễ dàng trong việc chuyển tiền mà không thông qua đội ngũ nhân viên của ngân hàng cũng đem lại những hệ lụy không hề nhỏ.

Gần đây nhất, một người tên A 50 tuổi đã thực hiện việc chuyển tiền cho người tên B với số tiền là 150 triệu won thông qua hệ thống chuyển tiền Mobie Banking, việc này được người A thực hiện ở nhà. Tuy nhiên trong lúc nhập số tài khoản của người nhận là người B, người A đã nhập sai 1 số dẫn đến việc số tiền 150 triệu won không được chuyển cho người B mà lại được chuyển cho người tên C. Người A sau khi biết được thông tin đã liên lạc ngay đến ngân hàng nhưng chỉ nhận được câu trả lời là không thể hỗ trợ được gì cả. Vì thứ nhất, số tài khoản cũng là người A chính thức nhập vào điện thoại, mọi thao tác liên quan đến chuyển tiền đều là do người A làm, do đó ngân hàng không thể hỗ trợ được điều gì cả. Ngay sau đó người A đã tìm đến người B là người nhận được số tiền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à đã xuất cảnh được hơn 12 năm, người này lại chỉ để lại số tài khoản của mình ở Hàn quốc mà không thực hiện bất kì một giao dịch nào cả. Do đó ngân hàng thực sự không có cách nào xử lý đối với những khách hàng không có giao dịch trong thời gian dài. Cuối cùng người A chỉ còn biết đưa đơn tố tụng lên tòa với mong muốn lấy lại số tiền mình đã chuyển nhầm.

Theo các bạn, nếu người B này không xuất cảnh mà vẫn đang lưu trú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thì sau khi nhận được số tiền chuyển nhầm là 150 triệu won thì người này sẽ có cách xử lý như thế nào cho hợp lý ạ?

Theo luật Hình sự điều 355(Biến thủ, chiếm đoạt tài sản), ① Người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tài sản của người khác nếu biến thủ hoặc từ chối hoàn lại số tài sản đó sẽ bị phạt tiền từ dưới 15 triệu won hoặc phạt tù từ dưới 5 năm

Nếu vậy, trong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giao dịch tín dụng như trên sẽ có thể xảy ra những sự cố sai lầm. Chúng ta phải xử lý như thế nào khi xảy ra những sai lầm chuyển nhầm tiền như trên?

Đầu tiên, người chuyển tiền nhầm hãy viết giấy đăng kí hoàn lại số tiền đã chuyển nhầm(이체반환청구서) và gửi đến ngân hàng của người nhận số tiền chuyển nhầm đó. Ví dụ như người chuyển tiền chuyển sang ngân hàng A cho người nhận thì hãy nộp giấy này cho ngân hàng A, nếu chuyển sang ngân hàng B thì hãy nộp giấy này sang ngân hàng B, vv Khi đi các bạn hãy cầm theo chứng minh thư, nội dung giao dịch và con dấu xác nhận nhân thân cùng với Giấy đăng kí hoàn lại số tiền đã chuyển nhầm.

Sau khi ngân hàng tiếp nhận giấy đăng kí của bạn, nhân viên ngân hàng sẽ liên lạc đến người nhận nhầm tiền và nhận sự đồng ý rút tiền trả lại cho người đã chuyển nhầm, các bước này sẽ hoàn thành trong khoảng thời gian là 3 ngày. 3 ngày sau người chuyển nhầm tiền sẽ nhận lại được số tiền mà mình đã chuyển nhầm. Tuy nhiên nếu bên phía ngân hàng không liên lạc được với người nhận nhầm tiền thì sao ạ? Nếu không liên lạc được với người nhận tiền nhầm, hay tài khoản của người nhận tiền nhầm đang bị phong tỏa, hay người nhận tiền nhầm đã tiêu số tiền được chuyển nhầm đó thì thời gian xử lý sẽ mất khoảng từ trên 6 tháng, vv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 기자단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임신부터 보육료, 사회서비스까지 국민행복카드로 혜택 받아보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

“한 장의 카드로
총 17종 지원!”

* 바우처 서비스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후진료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100만 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 또는 카드 영입정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사업 9종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사회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368,000원부터 ~ 최대 4,832,000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포 온라인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도 지원 - 조제분유: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기저귀 지원: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150,000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포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1인 가구: 96,500원 / 2인 가구: 136,500원 / 3인 가구: 170,500원 /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포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및 별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영아종일제: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지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 1,506~8,534원 지원 *일반가정 기준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포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240,000원~ 726,000원까지 지원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부모·보호자) - 복지포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국·공립 유치원: 80,000원 (월) 사립 유치원: 260,000원 (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0만 원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부모·보호자) - 복지포 온라인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38,000원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포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받기
: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 3가지 카드로 발급 가능:
신용카드(각 카드사별 자격심사),
체크카드(각 카드사별 만 14세~19세이상 자기 명의 계좌 필요),
전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가능
- 바우처서비스 신청하기: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온/오프라인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카드발급절차 없이,
바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별 바우처 사용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하세요!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www. voucher.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1566-3232 > 4번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안산 속 작은 세계문화체험 '다문화행복페스티벌'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제4회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다문화행복페스티벌” 개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는 지난 6월 12~1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다문화행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인 다문화행복페스티벌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소통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에서 다문화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해 그 의미가 깊다.

다문화행복페스티벌은 매년 행사장에 대규모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걸어서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1시간에 10명 내외의 인원만 입장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 미국, 인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총 9개의 부스가 꾸며졌으며, 각 부스에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전통물품이 전시된 것은 물론,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 부스에서는 제기를 직접 만들고 차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한국 전통 문화를 온 가족이 체험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인도 부스에서는 헤나타투 체험과 만다라 체험이 진행됐다. 만다라 체험은 그림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기회가 됐다. 동남아시아 부스에서는 가상으로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 라탄공예 체험, 현지선크림 체험이 마련됐다.

아프리카 부스의 사파리 동물원 체험과 중앙아시아 부스의 칼팍모자 만들기 체험도 인기가 많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한 안산시민은 “한국 뿐 아니

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이들에게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공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필리핀 참가자는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한국 사람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고국의 물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온누리씨앗후원회 관계자는 “오는 20일, 다문화행복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온라인 K-POP STAR’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안산시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안산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자원봉사자팀을 파견하여 의료지원 및 발열체크를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난 너리시 참 좋아” 부모교육 받고 아이와 함께 웃는 행복한 부모 되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 자질향상 위한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총 3회에 걸쳐 진행



부모 역할은 자녀의 삶과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족이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자녀와 소통하며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질향상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학령기 자

녀 부모교육 ‘아이와 함께 웃는 행복한 부모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의 자존감 키우기 ‘난 너리시 참 좋아’라는 주제로 오유키즈대표 이진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모 13명이 참석했다.

안산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은 앞으로 2회에 걸쳐 재미있게 책놀이 하는 방법 ‘그림책 놀이터’,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아이 키우기 ‘디지털 약속 지키기’ 주제로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한 중국 출신 한 참가자는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 해야 하는지 연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며 “강사가 쉽게 말해주어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와 함께 웃는 행복한 부모되기’ 부모교육은 교

육에 관심 있는 5세~7세 양육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1일에 이어 6월 18일, 6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시간이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599-1714)로 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와 사이좋은 부모 되기’ 부모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포스트 코로나와 미디어 시대의 부모 역할에 대해 알려주며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으로 지난 12일과 오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자 대상이며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김영의 기자

Home, which should be the safest place, can turn into the most dangerous place for some children.



<Where child abuse occurs>

79.5%

of child abuse cases takes place at home.

* Sourc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Major Stats

Do you think child abuse only means hitting a child?

- Hitting or hurting a child is physical abuse.
- Saying harsh words or intimidating a child is emotional abuse.
- Sexual words and actions toward a child is sexual abuse.
- Putting a child in an unsafe environment is child neglect.

Standard for child abuse punishment

No.	Prohibited actions	Punishment
01	Act of children trafficking (sale of children)	Up to 10 years in prison
02	Act of sexual abuse such as making or mediating children commit obscene acts, or sexual harassment that gives children sexual shame	Up to 10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03	Act of physical abuse that damages children's body or harms the health and development of the body	Up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04	Act of emotional abuse that harms children's mental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05	Act of 1) Abandonment of children who shall be under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a parent, a guardian or a person who is in charge, or 2) Neglect of children's basic needs, such as protection, nurturing, treatment, education, including food and shelter	Up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06	Act of letting the public enjoy see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07	Act of making children panhandle or act of panhandling by using children	Up to 1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08	Acting of making children involved in entertainment or shows detrimental to their safety and health, or acting of handing them over to a third party for such purposes	
09	Act of a person outside a legitimate recommendation agency obtaining, asking for or promising money and valuables in return for helping with arranging child-raising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10	Act of using money and valuables inherited or paid to a child for other purpose	
11	Child Abuse Homicide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over seven years in prison

Child Abuse Prevention Guid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reating your kids the way you feel just because they are your own children is a crime.

In case of child abuse Call 112



How to read a child's mind



Have you ever said or done something like this to your child? Or have you ever considered saying or doing anything like this to your child?

- My son kept lying, so I hit him to teach him.
- My daughter hurt herself while running around, so I said "why can't you just behave yourself?"
- When my son was having fun playing, I asked him to go home but he refused. So I told him that I would leave him here and go home without him.

Unintentionally spoken words and unconsciously made actions can leave children deeply hurt.



Let's think about proper educational methods that can be practiced in everyday lives.

- It's not appropriate to use corporal punishment for children's education.
You might make children think that it's okay to get beaten up for education. In order for children to grow up healthy, every one of them should be considered a valuable human being, not a parents' possession.
- Will children be spoiled if corporal punishment is not imposed on them?
If you keep using corporal punishment whenever kids do something wrong, they will learn to solve every problem using violence.

- We struggle every time when we have to feed our child since he would not eat.
It is possible that the child could express his grievances in the form of grumbling about meals. It is really important to find out what kind of grumbling your kid has. If you force your kid to eat meals it could cause your kid to be afraid of eating food. It would be a good idea to feed your child with his friends
- My child would not go back home once she starts to play at a playground.
It is only natural for your kid to not want to go back home as she wants to play more outside. It would be of great help if you set a time when she has to come back home.
- Once he has his younger brother, he has become so jealous that he sometimes bothers his brother when we are not around.
Showing his pictures or video-clips of when he was as little as his younger brother would be a solution since he can know he was once treated like his younger brother at that time.



We should be a safe shelter for our children.

Even though most child abuses take place domestically, it is common for us to be reluctant to report such cases as we treat them as issues of other families'



If you see a case of child abuse, do not hesitate to report it to the police.

- If you continuously hear scream or sound of cry of a child
- If you see a child in clothes unsuitable for the season or in dirty clothes
- If you see a child wander around when he or she should be in kindergarten or school
- If you see a child scared of his or her parents or going back home



Q&A

- Q What if you can't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call 112?**
A If you are suspicious, do not hesitate to call 112. It is up to professional child protection agencies, police and responsible public officers to judge whether it is a case of child abuse.
- Q What if you are retaliated against by your neighbor for reporting a child abuse case?**
A You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your identity will be safely protected by law. Do not worry ab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being revealed and do not hesitate to call 112.



How to report child abuse?

Just call 112



Ami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NEWS LETTER

2021년 5월 월간 소식 VOL. 27

#후원물품 #국무총리표창 #축하말 #토픽대비반 #진로인턴십 #통합문화활동 #난민자립

www.globalansan.com

2021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식 및 간담회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국리총리 표창 수여식
2021년 5월 14일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리총리상 수상 축하식
2021년 5월 17일 오전 센터장 외 전직원, 교강사, 학교 자치회 대표단 및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4층 대강당에서 학생 대표들이 깃발을 전달받은 뒤 3층을 행진하였습니다. 이때 각 반 모든 학생이 나와 박수치며 수상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부포상 기념 간담회

2021년 5월 17일 오후에는 제1대 강은이 센터장님과 센터 직원이 함께하는 정부포상 기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개별 집의 응답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무총리상수상 축하말

박솔라/바울빛학교

축하합니다! 이번에 우리 센터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떠나니 선생님을 통해 센터를 알게 되었고, 안녕학교에서 한국어 배웠던 게 기억에 남아요. 도움을 많이 주신 친절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윤우연/독 피엔/안녕학교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16살 때 처음 왔어요. 수원에 있는 선생님이 이곳으로 오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센터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센터가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손아루르/안녕학교

저는 17살이고 올해 처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연신고등학교의 추천으로 한국어 공부를 위해 센터를 처음 오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흥분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무한한 인내와 이해, 학생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가 상 받은 것을 정말로 축하합니다. 정말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센터 친구들도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한국이 बहुत अच्छее место입니다! 공부하여 성공하길 바랍니다!

올리아나/꽃빛학교

저는 19살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추운 나라에서 왔어요. 친구들을 다 사귀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센터에서 배웠어요. 센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재밌고 기쁘요. 선생님이 특별히 선생님이 사셨는데 감사해요. 센터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한국이 बहुत अच्छее место입니다! 공부하여 성공하길 바랍니다!

서나연/꽃빛학교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서나연입니다. 저는 17살이고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친구가 센터에 오라고 해서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선생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을 도움 많이 주었어요. 저는 특히 센터 다닐 때 너무 기쁘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생 축하 인사

지원 축하인사

이 상은 지난 11년간 많은 지원자들이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과 함께하며 흘렸던 눈물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격려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선두에 서 있는 기관인 만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임예강/팀장

축하합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관에서 일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세나/사회복지사

우리 센터의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센터를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부모님들을 감사드립니다!

김성근/사회복지사

우리 센터의 수상에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뜻깊은 순간입니다. 이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진/사회복지사

우리 센터의 국무총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인정 받은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아가는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조예빈/회계·운영

상록구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거점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안산시평생학습관'이 함께하는

한국어교실 토픽대비반

거점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최근 상록구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자 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OPIK' 대비반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 301호에서 TOPIK I (매주 화·목 16:00~18:00)과 TOPIK II (매주 일·수·금 16:00~18:00) 진행되며 5월 3일 첫 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2021년 5월 18일 진로·진학 인턴십 자문회의

<위촉장 수여>

자문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별 진로 교육(지도) 및 인턴십 연계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진로지도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와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로지도 인턴십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2021년 5월 21일 이주배경 청소년 네트워크 통합문화활동 자문회의

이번 자문회의는 산이주민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 활동에 대한 논의와 각 기관의 그간의 경험과 요구에 비추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안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통합문화 활동은 단원청소년수련관과 공동기획 후, 지역 내 고려인 동포를 주 대상으로 하는 기관과 다문화 특별학급 및 예비학급이 있는 초·중등학교를 우선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주제는 생활문화탐방, 체육, 예술이며, 세부 프로그램은 자문회의를 통해 수요조사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기획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통합문화 활동, 많이 기대 해주세요!

난민자립 지원사업

2021년 5월 3일 양육자 공동체_한국어교육 수업

난민자립지원사업 원 ♥ 양육자 공동체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난민 어머니들이 한국이 수업에 시작되었습니다. 5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난민커뮤니티 강당에서 한국어수업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기존 한국어교과 외에도 생활 속에서 필요한 실용한국어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진행합니다. 특히 텀블러, 지니볼, 아이패드 등 개인 생활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용품이 제공되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시간동안 적극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어머니들을 덕분에 '선생님~'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2시간동안 쉬는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 수업에도 어머니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어머니들이 한국어 수업이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주시고, 아이들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파이팅입니다!



선부동 땃골마을~중앙역 노선 신설

9-1번, 외국인주민 등 땃골 주민 숙원 해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선부동 땃골마을과 중앙역 사이를 운행하는 9-1번 버스를 신설하고 오는 21일 첫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날 선부다목적체육관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박은경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민중기(썬경원여객 대표, 지역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1번 오지노선 버스 개통식을 열고 주민 숙원 해결을 기념했다.

9-1번 노선은 버스 3대가 25~35분 간격으로 하루 30회 운행하며, 선부동 땃골마을을 출발해 라프리오아파트~군자주공아파트 11.12단지~단원구청.단원보건소~안산시청~중앙역을 경유한다.

선부동 땃골마을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단원구청.단원보건소, 전철역을 오가

는 버스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선7기 안산시는 이에 따라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청취, 운송사업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오지노선 시내버스 개통으로 학생, 어르신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도입, 오지, 벽지 버스노선 확충,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 무상교통,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등 시민이 편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며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에 밀반찬 사랑 전달

안산시 와동 새마을회, 사랑의 반찬 나눔 진행



안산시 단원구 와동 새마을회(회장 전선표, 부녀회장 박국희)는 지난 8일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밀반찬 나눔을 위해 새마을회원은 전날부터 모여 양파를 까서 간장에 절이고 사골국물을 준비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정성껏 만든 열갈이

김치, 사골우거지국, 양파장아찌는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등 50가구에 전달했다.

와동 새마을회원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힘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흥 와동장은 “정기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와동 새마을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나눠주시는 온정에 힘입어 동에서도 ‘한지붕 아래 따뜻한 와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Sự đa dạng trong gia đình hàn quốc. Tuy nhiên người vợ vẫn đảm nhận nhiều việc nhà hơn...

Trong khi tỷ lệ hộ gia đình 1 hoặc 2 người chiếm tỷ lệ ngày càng tăng trong xã hội Hàn Quốc, việc tiếp nhận các hình thức gia đình đa dạng như "không kết hôn" và "không sinh con" cũng được xác nhận là cũng đã tăng lên. Theo đó, triển vọng về sự đa dạng hóa của hình thức gia đình sẽ tiếp tục diễn ra trong tương lai.

Bộ Phụ nữ và Gia đình đã công bố kết quả về "Điều tra tình hình gia đình lần thứ 4", điều tra tình hình gia đình là việc thống kê phê duyệt quốc gia do Bộ phụ nữ và Gia đình thực hiện định kỳ nhằm sử dụng vào việc thiết lập chính sách gia đình. Cuộc khảo sát lầ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với đối tượng là tất cả các hộ gia đình có cấu tạo thành viên từ trên 12 tuổi trong tổng số 19,970 hộ gia đình trên toàn quốc vào tháng 9 năm ngoái.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năm trước, toàn bộ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1 người và 2 người chiếm tỷ lệ là 62.1%. Gia đình có từ dưới 2 thành viên chiếm tỷ lệ 44.2% vào năm 2015, và sau 5 năm tỷ lệ này đã tăng thêm 17.9%. Đặc biệt tỷ lệ của gia đình có 1 thành viên chiếm 21.3% vào năm 2015 thì đến năm ngoái đã chiếm 30.4%

Điểm nổi bật nhất là khả năng chấp nhận các hình thức gia đình đa dạng đã tăng lên. Tỷ lệ trả lời đồng ý với "độc thân không kết hôn", "không sinh con", "sống chung nhưng không đăng kí kết hôn" lần lượt là 37%, 25.3% và 29.1% tăng 1,6% , 5,9% và 7% so với năm 2015. Bộ Phụ nữ và Gia đình cho biết "Kết quả trả lời của độ tuổi 20 có thể ảnh hưởng đến sự thay đổi trong hình thức gia đình và chu kỳ cuộc sống trong tương lai".

Tuy nhiên, xu hướng người vợ phải làm việc nhà nhiều hơn người

chồng chiếm phần nhiều hơn trong cuộc sống gia đình. Tỷ lệ người vợ "làm việc nhà" như chuẩn bị và dọn dẹp bữa ăn, "giáo dục và nuôi dạy con cái" lần lượt là 70,5% và 57,9%. Đặc biệt, trường hợp gia đình có trẻ em dưới 12 tuổi, người vợ đang đảm nhận trách nhiệm chăm sóc trẻ em như thu thập vật phẩm chuẩn bị cho trẻ đi học(83%) và quản lý việc học tập của trẻ (74,9%).

Tuy nhiên, hơn một nửa số cặp vợ chồng dưới 29 tuổi trả lời rằng chồng và vợ cùng chia sẻ công việc gia đình. 49.2% số người trả lời rằng nuôi dạy và giáo dục con cái đều giống nhau. Việc phân chia vai trò của cặp vợ chồng truyền thống tập trung vào độ tuổi trẻ đã được xác nhận.

Nếu nhìn vào giới tính của hộ gia đình 1 người thì phụ nữ chiếm 53%, nhiều hơn nam giới (47%) và người già trên 50 tuổi chiếm 61.1% Ngoài ra, tỷ lệ thu nhập dưới 2 triệu won mỗi tháng đạt 58,1% và mức thu nhập nói chung thấp. Lý do chính mà nhiều người lựa chọn cuộc sống sinh hoạt gia đình một cá nhân là vì lý do học tập và việc làm trong độ tuổi từ 20 đến 40, ly hôn trong độ tuổi 50 đến 60 và tử vong của người vợ hoặc người chồng trên 70 là cao nhất.

Bộ phụ nữ và Gia đình có kế hoạch tăng cường chính sách gia đình phản ánh chu kỳ cuộc sống của từng loại hình gia đình phù hợp với sự thay đổi giá trị gia đình cũng như sự phát triển nhanh chóng của hình thái gia đình mới. Đầu tiên, Bộ sẽ mở rộng hỗ trợ theo chu kỳ cuộc sống, bao gồm thanh niên, tuổi trung niên, người cao tuổi, và thực hiện dự án hỗ trợ mạng lưới quan hệ xã hội cho các gia đình chỉ có một thành viên.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집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가족이 함께 행복여행

시흥건가다가 능곡분관,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으로 운영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5월 능곡동 분관에서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문화프로그램 ‘집에서 세계 속으로 멕시코편’을 진행했다.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사업은 문화 활동 및 교류 관계를 즐길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친밀감 향상 및 소통의 기회 증진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다문화가족문화프로그램 ‘집에서 세계 속으로-

멕시코편’은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기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식물 ‘플랜테리아’를 활용한 원예체험 활동, 2회기는 멕시코 음식인 부리또 만들기, 마지막 3회차는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세계여행으로 다양한 주제를 통해 멕시코의 문화를 알아보는 활동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 한 참가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활동이 적은 시기에 가정에서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 하였다. 여행을 가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6월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문화프로그램 2회차 ‘집에서 세계 속으로 이탈리아편’이 5월 진행된 멕시코 편과 동일하게 3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 참여하지 못한 다문화가족들은 유선(070-4236-7445) 혹은 홈페이지(shcity.family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432-79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돕는다

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추진



시흥시(시장 임백택)는 지난 5월 31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대교 시흥지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시흥시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만4세~만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1:1 수준별 단계별 한글 또는 한국어교육을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전문교육 수행기관으로 학습지 전문업체인 ㈜대교가 선정됐고, 5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상자 모집을 거쳤다. 6월부터는 선정된 대상자의 연령 및 학력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실질적인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학습비용 월 4만원 중 경기도와 시흥시가 27,000원을 지원하며, ㈜대교에서 1만원을 부담해 대상자는 3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분 내외로 한글과 국어 중 1과목 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 향상으로 자신감과 학습능력이 높아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031-310-26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확장의한국사회 “家庭多样性”

家务事还是由妻子做的多

在韩国社会1~2口之家所占的比重正在增加, “非婚生育”、“无子女”等多种家庭形态的接受度也在提高。由此可见, 今后家庭形态的多样化将会持续下去。

女性家庭部发表了《第四次家庭实态调查》的结果。家庭实态调查是为建立家庭政策, 由女性家庭部定期进行的国家认可统计。此次调查是于去年9月以全国1,099.7万户12周岁以上的所有家庭成员为对象实施的。

调查结果显示, 去年全体家庭中1人家庭和2人家庭所占的比率达到了62.1%。2人以下家庭的比重是2015年的44.2%。时隔5年增加了17.9个百分点。特别是1人家庭的比重从2015年的21.3%明显增加到去年的30.4%。

最明显的是对多种家庭形态的接受程度得到了提高。同意“非婚独身”、“非婚同居”和“无子女家庭”的比率分别为37%、25.3%和29.1%, 与2015年相比分别增加了1.6%、5.9%和7%。女性家庭部说明: “可以看出20代的回答结果会对今后家庭形态及生命周期的变化产生影响。”

但是在夫妻履行家务中妻子所占比重更多的倾向依然存在。因为, 做饭和打扫卫生等“家务劳动”和“子女养育和教育”由妻子负责的比率分别达70.5%和57.9%。特别是有未满12岁子女的情况下, 准备学习准备物品(83%)、管理子女学习(74.9%)等都由妻子全权负责子女的照顾。

但29岁以下的夫妇中, 回答“丈夫和妻子共同分担家务劳动”的比率超过了一半, 达到56.4%。而49.2%的受访者认为子女养育问题和教育问题一起负责。这意味着以年轻年龄段为中心的传统夫妻角色分担正在发生变化。

从1人家庭的性别来看, 女性占53%多于男性(47%), 从年龄来看, 50岁以上的高龄层占61.1%。另外, 月收入不足200万韩元的人占58.1%, 整体收入水平较低。以1人家庭生活的主要原因是, 20~40多岁的人学业或者就业原因, 50~60多岁的人由于本人离婚的原因, 70岁以上的人配偶死亡的原因为最主要原因。

女性家庭部计划, 根据新型家庭形态迅速扩散和家庭价值观变化的情况, 计划加强反映不同家庭形态的生命周期的家庭政策。首先为了1人家庭, 将扩大青年、中壮年、高龄等各生命周期的支援, 还将实施社会关系网支援事业。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Cách lấy bằng lái xe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Học lái xe tại trường đào tạo lái xe



Hiện nay có rất nhiều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ở hữu xe oto tại Hàn quốc. Đặc biệt là những người phụ nữ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phải nuôi con nhỏ thì việc cần thiết của xe oto là nhiều nhất

Để có thể lái xe một cách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hay bất kì quốc gia nào chúng ta đều phải cần bằng lái xe. Để có thể lấy được bằng lái xe thì chúng ta phải vượt qua kì thi sát hạch do cục quản lý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ưa ra cùng với đó chúng ta cũng phải đi cả kì thi thực hành lái xe ngoài đường.

Có ba loại bằng lái là bằng lái phổ thông loại 1, loại 2 và bằng lái thực tập. Ở mỗi loại bằng lái lại có phương thức thi thực hành khác nhau do đó các bạn hãy tìm hiểu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đăng kí thí loại

bằng nào đó trong ba loại bằng được nêu trên nhé.

Bằng lái xe oto

Bằng lái xe oto là một loại bài thi đòi hỏi người tham gia giao thông phải thành thạo trong những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điều khiển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hấp hành nghiêm chỉnh luật lệ trong an toàn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ớc khi thi bằng lái chúng ta phải lựa chọn được loại bằng lái mà chúng ta muốn thi là loại bằng lái gì

Bằng lái phổ thông loại 2 là loại bằng lái có thể lái được xe oto từ dưới 10 chỗ trở xuống. Nếu các bạn có nguyện vọng lái xe tải hoặc lái xe oto có từ trên 10 chỗ trở lên thì cần loại bằng phổ thông loại 1

Đối với bằng loại 1 sẽ được chia ra thành bằng lái xe có trọng tải lớn, bằng phổ thông và bằng lái xe đặc biệt. Loại 1 bao gồm những xe tải, máy móc có trọng tải lớn, loại phổ thông bao gồm những xe oto có từ trên 15 chỗ, xe cứu trợ có từ dưới 12 chỗ, những xe có trọng tải dưới 12 tấn

Bằng lái xe loại 2 bao gồm lái những loại xe thông thường và xe có trọng tải nhỏ. Những loại xe đó bao gồm xe oto thông thường, những loại xe có từ dưới 10 chỗ và những loại xe nhỏ như xe máy vào khoảng 125cc.

Bằng loại 2 dễ lấy hơn bằng loại 1 nhiều vì bằng loại 2 là loại bằng mà cần điều khiển không phải là 'cần số'. Nếu các bạn lấy bằng loại 2 thì không thể điều khiển được những loại xe có cần điều khiển là cần số.

Đặc biệt khi chúng ta ra nước ngoài thì hãy chú ý xem quốc gia đó có nhiều loại xe là cần số hay cần ga, nếu cần thì hãy thi bằng quốc tế ngay từ khi đăng kí cấp bằng lái xe. Nếu chúng ta có bằng loại 1 thì cả xe loại 1 và loại 2 chúng ta đều có thể lái được.

Việc lấy bằng lái xe sẽ được tiến hành theo 4 bước quan trọng. Bước đầu tiên là kiểm tra thân thể bao gồm thính giác, thị giác, vv bước 2 là thi khoa, bước 3 thi lý thuyết và bước 4 là thi thực hành ngoài đường. Đối với bước 2, điểm số đối với loại 2 là 60 điểm và loại 1 là 70 điểm. Đối với bước 3 là 80/100 và bước 4 là 70/100.

Tất cả những bước thi này nếu chúng ta tự làm sẽ rất khó để có thể đi do đó các bạn hãy liên hệ đến các trung tâm dạy lái xe gần nhất để được tư vấn hỗ trợ nhé.

<한글 기사 4면>

강혜나 기자

วิธีทำใบขับขี่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างายที่โรงเรียนสอนขับรถ 외국인주민 위한 운전면허 취득법

ในบรรดาท่ามกลาง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แล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ำรงชีพ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ป็นเจ้าของรถยนต์ และขั้บรถยนต์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ผู้หญิงต่างชาติที่แต่งงานมีแนวโน้มที่จะขั้บรถสำหรับ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ในการขั้บรถคุณต้องได้รับใบขั้บขั้ ใบขั้บขั้ หมายถึง ใบอนุญาตที่ออกโดยบุคคลที่ตั้งใจจะขั้บรถ ฯลฯ หลังจาก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ของแผนก และการทดสอบทักษะ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หน่วยงานจราจรทางบก ใบขั้บขั้มี 3 ประเภท คือ ประเภทที่ 1 และ ประเภทที่ 2 และ ใบอนุญาตขั้บรถแบบฝึกหั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คุณสมบัติ และประเภทการทดสอบแตกต่างกัน เล็กน้อยสำหรับใบขั้บขั้แต่ละประเภท จึง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ผู้เริ่มสอบมือใหม่ เพื่อทราบแบบทดสอบใบขั้บขั้ที่พวกเขาต้องการล่วงหน้า และเพื่อ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ประเภทการทดสอบ

ใบขั้บขั้

การทดสอบใบขั้บขั้รถยนต์หมายถึงการทดสอบคุณสมบัติที่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ขั้บขั้ของผู้ขั้บขั้ตลอดจนระดับ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จราจร 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ระเบียบเรียบร้อย

ในการสอบ คุณต้องตัดสินใจก่อนว่าคุณต้องการรับใบ

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ใดต้องมี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 2 เพื่อขั้บรถยนต์ทั่วไปที่มีผู้โดยสารนั่งไม่เกิน 10 คน หากคุณต้องการขั้บรถตู้ หรือ รถบรรทุกที่มีคนมากกว่า 10 คน คุณต้อง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

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ที่ 1 แบ่งออกเป็นใบอนุญาตขนาดใหญ่ ใบอนุญาตปกติ และใบอนุญาตพิเศษ ใบอนุญาตขนาดใหญ่ประเภท 1 ให้คุณขั้บรถตู้, รถบรรทุก, เครื่องจักรก่อสร้าง ฯลฯ และใบอนุญาตทั่วไปประเภท 1 ให้คุณขั้บรถตู้ที่มีความจุ 15คน หรือ น้อยกว่า ยานพาหนะฉุกเฉินที่มีความจุ 12คน หรือ น้อยกว่า และรถบรรทุกขนาดไม่เกิน 12 ตัน

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ที่ 2 แบ่งออกเป็นแบบปกติและแบบเล็ก ยานพาหนะที่สามารถขั้บเคลื่อนในคลาส 2 ปกติได้คือรถยนต์นั่งทั่วไป รถตู้ที่มีความจุ 10คน หรือ น้อยกว่า และ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เกิน 125cc ในกรณีของรถยนต์ขนาดเล็กประเภท 2

การขอใบขั้บขั้ประเภท 2 นั้นง่ายกว่าการได้รับใบขั้บขั้ประเภท 1 มาก เนื่องจากกรณี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เกียร์ 'อัตโนมัติ' ได้ หากคุณมีใบอนุญาตรถยนต์ประเภท 2 คุณ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ขั้บรถบรรทุกธรรมดาไ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หากคุณไป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มีบางประเทศที่มีรถเกียร์ธรรมดามากกว่า ดังนั้น คุณจึงต้องระวังเมื่อ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หรืออ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หากคุณ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 1 คุณสามารถขั้บยานพาหนะใดๆ ที่อยู่ภายใต้ใบอนุญาตประเภท 2 ได้ การทดสอบใบขั้บขั้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 4 ขั้นตอน คือ ขั้นตอนที่ 1 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 ตอนที่ 2 ทดสอบข้อสอบภาคทฤษฎี, ตอนที่ 3 การทดสอบ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ล้อไ้, ตอนที่ 4 เป็นการทดสอบทางถนน สำห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ภาคทฤษฎีต้องใช้เวลา 60 คะแนน สำหรับประเภท 2 และ 70 คะแนน สำหรับประเภท 1 เพื่อให้ผ่าน และ 80 คะแนน เต็ม 100 สำห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ล้อไ้ และ 70 คะแนน สำหรับการทดสอบการขั้บขั้บนถนน

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มากสำหรับ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ที่จะผ่า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นี้เพียงลำพัง ทุกวันนี้ คนเกาหลีส่วนใหญ่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จากโรงเรียนสอนขับรถ ดังนั้น จึงเป็นการดีสำหรับ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ที่จะใช้โรงเรียนสอ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สอบใบขั้บขั้

<한글 기사 4면>

이아리 기자



외국인주민 많은 다문화도시 시흥, 통역 인력풀 운영한다

시흥시, 글로벌 통역 인력풀 선정대상자 15개 언어 30여명 사전교육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시청 글로벌센터2에서 시흥 글로벌 통역 인력풀 선정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은 6만 명가량으로 현재 시흥시 총인구의 11%를 넘어섰다. 시흥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은 다문화도시로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역 인력풀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 글로벌 통역 인력풀은 총 15개 언어 30여 명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전교육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통역 활동 시 유의점 및 보안사항, 코로나19

대응 업무, 기타 질의 사항 등을 함께 다뤘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통역 인력풀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통역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정왕본동 복지톡’ 카카오톡 채널 개설

정왕본동(동장 오을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 마련 및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복지상담 편의성 강화 필요에 따라 ‘정왕본동 복지톡’이란 이름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왕본동 복지톡’이란 톡(Talk 대화하다)으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주민이 쌍방향 복지소통을 한다는 의미이다.

정왕본동 복지톡은 정왕본동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단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정왕본동 복지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복지정보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1:1 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해당 채널의 운영시간은 신고? 문의는 24시간 가능하고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지은 기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생도 지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의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에서 경기도 및 타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학교 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이며,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교복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시흥시 교육자치과(시흥시 소래산길 11,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 3층 교육자치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revolkk13@korea.kr) 신청할 수 있다. 031-310-3496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 함께 '웰컴 글로벌 원정대'

시흥시, 올해 청소년국제교류 신규사업...글로벌 공동체 의식 함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5월 3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주민과 함께하는 웰컴 글로벌 원정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 속에 살아가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문화이해교육과 이주 외국인 인식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 중요해진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올해 청소년국제교류 신규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시흥시의 총인구 56만 명 중 외국인 거주자는 6만 명가량으로 10%가량을

차지한다. 강사는 시흥시에 직장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주민이 맡는다.

총 8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등학생 5, 6학년 31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지구, 외국인 주민이 말하는 시흥, 한국에 관한 문화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역이 가진 특징과 사회적 문제를 발견해보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온라인 교육 6회 과정을 거친 뒤 직접 현장에서 외

국인 주민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시흥시장 명의의 민간 외교관 수료증 발급과 향후 시 청소년국제교류 해외파견사업 인센티브 또한 부여된다.

이 밖에도 시흥시는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청소년국제교류 카페(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공지사항과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만~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 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이지은 기자

Từ bỏ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để được ly hôn dĩ chẳng nữa thì cũng vẫn nhận được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Hai người đã từng thề sẽ yêu thương nhau đến đầu bạc răng long tuy nhiên cuộc sống vợ chồng lại không như mong đợi do đó hai người phải ly hôn. Trong trường hợp ly hôn mà có con nhỏ thì việc ai là người nuôi con và người không nuôi con sẽ phải trợ cấp số tiền là bao nhiêu một tháng để nuôi con là một trong những vấn đề quan trọng cần phải được cân nhắc cẩn thận.

Vấn đề ở đây đó chính là để cho bản thân mình chịu thiệt để có thể hoàn tất thủ tục ly hôn trong thời gian ngắn nhất. Để thoát khỏi người chồng bạo lực mà người vợ đã bị người chồng ép viết giấy cam kết không nhận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để được ly hôn. Vậy quyền trẻ em rất quan trọng, giấy cam kết không nhận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của người vợ có được tòa án chấp nhận hay không?

Khi tiến hành làm các thủ tục ly hôn, mặc dù không ai mong muốn nhưng cuộc sống không hề đơn giản do đó các bạn phải có một ý chí thật kiên cường và quyết đoán. Hãy tìm hiểu tất cả những thông tin có lợi cho mình nhất khi tiến hành ly hôn để tránh xảy ra những mâu thuẫn xảy ra sau này. Một số trường hợp, để được ly hôn, đối phương sẽ phải chịu chấp nhận những điều kiện nào đó của đối phương. Để được giải thoát một cách nhanh chóng do đó chúng ta chịu chấp nhận những thiệt hại về mình.

Quay trở lại ví dụ đầu tiên, mặc dù người vợ đã viết giấy cam kết không nhận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từ người chồng dĩ chẳng nữa thì sau này thông qua phán quyết của tòa án người vợ vẫn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từ người chồng. Đây được gọi là Thay đổi hoàn cảnh(사정변경). Thay đổi hoàn cảnh có

nghĩa là những hoàn cảnh mà mình không thể dự kiến được trước tại thời điểm tiến hành làm thủ tục ly hôn.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là số tiền mà cả hai vợ chồng sẽ cùng nhau thỏa thuận để đi đến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lúc ly hôn. Nếu hoàn cảnh thay đổi thì đương nhiên là quyết định ban đầu cũng sẽ được thay đổi.

Đ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này từ người chồng thì người vợ sẽ phải làm đơn tố tụng liên quan đến thay đổi hoàn cảnh và đưa lên tòa án gia đình. Trong đơn tố tụng, người vợ liệt kê đầy đủ tình tiết khi ly hôn như bị bạo hành, bị chồng ép kí giấy cam kết từ chối nhận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vv Tòa án sẽ xem xét và phán quyết, tùy thuộc vào mức độ mà người vợ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trợ cấp mà người chồng đã yêu cầu phải từ bỏ để được giải quyết việc ly hôn.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Thẻ hệ-
đăng cam chu ki vòng đời-UP

☐ “Phương pháp cho bú” Siheung 119

chính sách y tế và phụ trách y tế địa phương(031-310-5837)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 Phụ nữ mang thai trên 20 tuần và đang cho con bú
- Nội dung tiến hành

Phụ nữ mang thai	Phương pháp chăm sóc ngực khi mang thai, hướng dẫn cho con bú, hướng dẫn chuẩn đoán và cho con bú
phụ nữ cho con bú	Tư vấn cho con bú, tư vấn việc thừa và thiếu lượng sữa, quản lí chăm sóc núm vú v.v

- Thời gian tiến hành

Trung tâm y tế Siheung	Tháng 3 năm 2019 tuần thứ 2, tuần thứ 4 thứ Năm 10:00 ~ 12:00
Trung tâm y tế JeongWang	Tháng 2 năm 2019 tuần thứ 2, tuần thứ 4 thứ Ba 10:00 ~ 12:00

* Cần gọi điện thoại hẹn trước

☐ Cho mượn máy hút sữa

Trung tâm y tế Siheung(031-310-5837)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Đã sinh con(*100% phải đăng kí trước)
- Thời gian sử dụng : cho mượn đúng 2 tuần(có thể đăng kí mượn thêm. Nếu, không có người đăng kí chờ có thể mượn được ngay)

☐ Hỗ trợ trẻ sinh non và tinh bẩm sinh

Trung tâm y tế Siheung(031-310-5838)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 Gia đình có trẻ sinh non với mức thu nhập bình quân dưới 180%
 - Trẻ thứ hai trở lên sinh non hoặc bẩm sinh (hỗ trợ không xét mức thu nhập)
- Nội dung hỗ trợ
 - Trẻ sinh non hoặc bẩm sinh được chăm sóc y tế phù hợp
 - Quản lí chăm sóc trẻ sinh non và bẩm sinh
 - Hỗ trợ dựa theo mức thu nhập
- Hướng dẫn đăng kí : Trong vòng 6 tháng kể từ ngày xuất viện phải nộp hồ sơ chứng nhận cư trú và đến trung tâm y tế đăng kí
- Hồ sơ gồm
 - Giấy đăng ký hỗ trợ chi phí điều trị cho trẻ sinh non bẩm sinh(có mẫu sẵn ở trung tâm y tế)
 - 1 bản gốc hoá đơn chi phí điều trị và 1 bản gốc chi tiết về hoá đơn chi phí điều trị
 - 1 bản sao tài khoản ngân hàng
 - 1 bản giấy bảo sinh(giấy khai sinh).
 - 1 bản gốc giấy chẩn đoán có kèm tên bệnh(cần phải nộp ngay đối với trẻ sinh non)
 - Trường hợp nếu địa chỉ cư trú của bố mẹ khác nhau thì phải nộp giấy quan hệ gia đình
 - giấy chứng minh(nếu không có mặt thì cần con dấu)(*100% đặt trước)



☐ Hỗ trợ kiểm tra cho trẻ bẩm sinh

Trung tâm y tế Siheung(031-310-5838)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 tất cả trẻ (kiểm tra trẻ sơ sinh sau khi sinh 3~7ngày)
- Nội dung hỗ trợ
 - (Hàng mục kiểm tra)Phenylketon niệu, suy giáp, homocystin niệu, tiểu đường, galactose, tăng sản tuyến thượng thận bẩm sinh
 - (Phí kiểm tra lần 1) Khoản đồng thanh toàn tiền lương khoảng 22 ~ 411.000 won (chỉ khi được kiểm tra trong vòng 6 tháng)
 - Kết quả kiểm tra lần thứ 2, bệnh nhân được xác nhận mắc chứng rối loạn chuyển hóa bẩm sinh có thể yêu cầu phí khám tại trung tâm y tế công cộng và hỗ trợ khoảng 700.000 Won.
- Hồ sơ gồm
 - Giấy đăng kí
 - Hóa đơn điều trị
 - Chi tiết điều trị (chi tiết số tiền)
 - Bản sao sổ ngân hàng
 - Trong trường hợp yêu cầu xác nhận lệ phí kiểm tra, nộp giấy chứng nhận y tế (phải nộp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sinh)

☐ Hỗ trợ cho chuyển hóa bẩm sinh bất thường

Trung tâm y tế Siheung(031-310-5838)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 Được chẩn đoán rối loạn chuyển hóa bẩm sinh
 - Trẻ em dưới 19 tuổi được coi là cần hỗ trợ y tế đặc biệt
- Nội dung hỗ trợ

Công thức đặc biệt, hỗ trợ thực phẩm ít protein	Hỗ trợ chi phí y tế(bao gồm tiền thuố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ỗ trợ cho trẻ bị rối loạn chuyển hóa bẩm sinh, chẳng hạn như phenylketon niệu, đôi khi công thức đặc biệt và thực phẩm ít protein • Tham khảo đơn thuốc và ý kiến của bác sĩ để xem xét sự khác biệt của từng trẻ theo đặc điểm và lượng ăn của bệnh nhâ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ẻ em bị suy giáp bẩm sinh: Chi phí điều trị y tế cho năm (bao gồm cả năm trước chưa thanh toán) được chi trả trong phạm vi 276 nghìn won • Có thể áp dụng dựa trên thời gian được chẩn đoán có bất thường về chuyển hóa bẩm sinh và được đăng ký tại trung tâm y tế (đơn xin hỗ trợ). • Hỗ trợ chế độ ăn uống đặc biệt cho trẻ em mắc bệnh Crohn và hội chứng ruột ngắn trong số các bệnh khó chữa hiếm gặp

- Hồ sơ gồm
 - Giấy đăng kí
 - Giấy chẩn đoán của bác sĩ
 - Bản gốc hóa đơn(Hoá đơn của chi phí điều trị trong vòng 1 năm kể từ ngày đăng kí)
 - Bản sao sổ ngân hàng
 - Hộ khẩu gia đình (Nếu bố mẹ không ở cùng nhau)



MANG THAISINH SAN

Thẻ hệ-
đăng cam chu ki vòng đời-UP

☐ Hỗ trợ cho thẻ Kukmin

Trung tâm tư vấn y tế(không có số đầu 129)
Dịch vụ tư vấn khách hàng(tính phí) 1566-3232

- Đối tượng ưu tiên : Người đăng kí bảo hiểm y tế xác nhận mang thai, giấy đăng kí hỗ trợ chi phí sinh nở
- Nội dung hỗ trợ
 - Được hỗ trợ để trang trải chi phí mang thai
 - Hỗ trợ chi phí y tế khi mang thai và sinh nở cho bà mẹ vi thành niên (dưới 1,2 triệu won / lần mang thai cho thành thiếu niên dưới 18 tuổi)
 - Hỗ trợ chi phí bảo hiểm y tế khi mang thai và sinh sản
 - Hỗ trợ chăm sóc sức khỏe cho sản phụ và trẻ sơ sinh
- Hướng dẫn đăng kí : Đăng kí thẻ hỗ trợ(thẻ BC, thẻ Lotte, thẻ Samsung)



☐ Hỗ trợ nghỉ thai sản

Trung tâm tư vấn khách hàng thuộc bộ lao động
(không có số đầu 1350)

- Đối tượng ưu tiên : Nghỉ phép trước và sau sinh(bao gồm sảy thai,thai lưu), sử dụng ngày nghỉ phép và giảm giờ làm
- Nội dung hỗ trợ
 - (tiền lương nghỉ trước và sau sinh) Nghỉ phép trước và sau sinh vẫn nhận 100% lương

Đơn	Ưu tiên hỗ trợ cho đối tượng doanh nghiệp là 90ngày 540.000won, các doanh nghiệp lớn là 30ngày tối đa 1.800.000won
Tất cả	Ưu tiên hỗ trợ cho đối tượng doanh nghiệp tối đa 720.000 won trong 120 ngày, các doanh nghiệp lớn tối đa 1.800.000 won trong 45 ngày
Giới hạn	Mức lương cơ bản của công nhân (nhưng, trường hợp không nhận được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hì sẽ được hỗ trợ) /

- (Lương nghỉ phép tạm thời để nuôi dạy trẻ)
 - √ Hỗ trợ 80% mức lương trong 3 tháng bắt đầu từ ngày nghỉ phép(trên 1.500.000 won, không dưới 700.000won)
 - √ Hỗ trợ 40% mức lương bắt đầu từ tháng thứ 4 của kỳ nghỉ phép đến khi kết thúc(trên 1.000.000won, không dưới 500.000won)
 - √ Nếu bố mẹ sử dụng nghỉ phép của bố mẹ một cách tuần tự cho cùng một đứa trẻ, thời gian nghỉ ba tháng của bố mẹ trong tháng thứ hai sẽ trả 100%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tối đa 2,5 triệu won)
- (Giảm thanh toán cho giờ làm việc trong chăm sóc trẻ em)
 - 80%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giới hạn trên 1,5 triệu won, giới hạn dưới 500.000 won) x (giờ làm việc được xác định trước - thời gian làm việc ngắn hơn sau khi rút ngắn) / giờ làm việc được xác định trước trước khi rút ngắn

Thẻ hệ-
đăng cam chu ki vòng đời-UP

☐ Hỗ trợ phụ nữ mang thai khi có nguy hiểm cao

chính sách y tế và phụ trách y tế địa phương(031-310-5837)
Trung tâm y tế JeongWang(031-310-5941)

- Đối tượng ưu tiên : Phụ nữ mang thai được chẩn đoán 19 bệnh nguy cơ cao khi mang thai và nhập viện
 - * 19 bệnh có thai nguy cơ cao: chuyển đa sớm, vỡ ối sớm, chảy máu liên quan đến sinh nở, nghẹn thai nghén nặng, bong nhau thai sớm, nhau thai trước, khẩn cấp, tăng nước ối, chảy nước ối, chảy máu cổ tử cung, chảy nước ối Mang thai, đái tháo đường, rối loạn chuyển hóa, nôn mửa, bệnh thận, suy tim, hạn chế tăng trưởng tử cung, các bệnh về ruột thừa và tử cung
- Tiêu chí cơ bản: Người thụ hưởng gia đình cơ bản, người thứ hai và bảo hiểm y tế
 -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rung bình dưới 180%
- Thời gian đăng kí : trong vòng 6 tháng kể từ ngày sinh nở
- Nội dung hỗ trợ : 90% tổng chi phí tự chi trả và không thanh toán chăm sóc bệnh nhân nội trú có nguy cơ cao

☐ Lương sinh con

Tùy theo nhóm phúc lợi của mỗi trung tâm hành chính

- Đối tượng ưu tiên : hỗ trợ sinh kế, y tế và người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trợ cấp sinh (bao gồm cả sinh dự kiến)
- Nội dung hỗ trợ : Người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trợ cấp sinh (bao gồm cả sinh dự kiến), hỗ trợ 700.000 won cho trường hợp 1 người và(1,4 triệu won cho cặp song sinh)
- Hướng dẫn đăng kí: Đến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 Voucher năng lượng

Trung tâm tư vấn voucher năng lượng(1600-3190)

- Đối tượng ưu tiên
 - Người nhận trợ cấp sinh kế hoặc trợ cấp y tế
 - Trong số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trên bảng đăng ký thường trú thuộc các trường hợp như người già, trẻ sơ sinh, người tàn tật, phụ nữ mang thai, bệnh nặng và các bệnh khó chữa hiếm gặp
 - Người già: 65 tuổi trở lên
 -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khuyết tật được đăng ký theo luật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khuyết tật
 - Trẻ sơ sinh: Dưới 6 tuổi
 - Phụ nữ mang thai: Phụ nữ có thai hoặc dưới 6 tháng sau khi sinh theo luật Sức khỏe Bà mẹ và Trẻ em
 - Bệnh Sever : Bệnh nặng theo luật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 Bệnh nhân mắc bệnh khó chữa: Các bệnh khó chữa hiếm gặp theo luật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 Nội dung hỗ trợ
 - Phiếu hỗ trợ mua hàng điện tử tổng hợp để mua điện, gas, than bành và dầu hỏa vào mùa đông (tháng 11-5)
 - Các chứng từ điện tử bao gồm thẻ kiểm tra, thẻ tín dụng

10
11

MANG THAISINH SAN

다문화가족 자녀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

시흥시와 시흥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실태조사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서,시화초등학교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시흥시 기존 다문화정책을 점검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교육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기획됐다.

조사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한 대면 설문조사로, 학부모는 설문지 배부와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다문화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설문지를 번역해 배포했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 가구 특성 ▲교육과 학교생활 ▲다문화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등 총 3개 영역 15문항 내외로, 생활 전반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등 정책 지원 내용으로 구성했다.

향후 시흥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설문 분석과 정책제언을 의뢰해 그 결과를 시흥시 다문화외국인 주민 협의체 및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유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신체적 심리적 성장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를 웃도는 다문화 도시”라며 “다문화가족이 시흥시 지역사회에 깊숙이 관여하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은 시흥시가 진행하는 이번 자녀교육실태 조사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김영의 기자

내외국인 소통해 현장 이야기 담는다

시흥시,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협의체’ 위촉식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시흥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5대 회장도시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문화.외국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흥시만의 특색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민 10명(8개국)으로 ‘시흥시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

며 진행됐다. 시흥시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다문화정책관을 비롯한 주민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월 1회 정기회의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미니포럼,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만들고자 주민들은 직접 제안하고 한뜻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도시 시흥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 Удобно получить в автошколе.

Сред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так же многие лица владеют автомобилями и управляют ими. В частности, замужние женщины-иммигранты, имеющие детей, стали чаще ездить на автомобилях, так как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Чтобы управлять автомобилем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это лицензия, выданная лицу, которое намеревается водить автомобиль и т. Д.,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в едомственного теста и проверки навыков, проводимых Управлением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Существуют три категории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категория 1 и 2, а также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для практики 3 категории.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тесты значительно различаются для каждой категории, желающим сдать экзамен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ст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той категории, которую они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Тест на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тносится к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ому тесту, проводимому для проверки способностей водителя к вождению, а также уровня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и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орядка.

Перед тем как сдать тест, вы должны сначала решить, какую категорию удостоверения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2 требуется для вождения обычного легк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с 10 или менее пассажирами. Если вам нужно управлять фургоном или грузовиком вмещающим более чем 10 пассажиров, в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I.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I в целом делится на 3 типа: основная, обычная и специальная лицензи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1 основного типа позволяет управлять фургонами, грузовиками,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ой и т. Д., А обычного типа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 категории 1 позволяет вам управлять фургоном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15 пасса-

жиров, легковым автомобилем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12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ым вагоном с грузоподъемностью до 12 тонн.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2 в целом делится на обычный и малый типы.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могут управляться для обычного типа категории 2, - это обычные легк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фургоны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10 человек и мотоциклы с объемом двигателя более 125сс.

Получи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2 намного проще, чем категории 1, из-за небольшого размера автомобиля и возможности выбора «автоматической» передачи.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2, вы не можете управлять автомобилем с механической коробкой передач.

В частности, если вы уезжаете за границу,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 где большин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с механической коробкой передач,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при получ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ли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за границей.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тегории 1, вы несомненно можете управлять любым транспортным средством, подпадающим под действие и категории 2.

Экзамен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проводится в 4 этапа.

Первый - это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второй - проверка знаний, третий - тест на управление функциями, и четвертый - вождение на дороге. Проходной балл для 2 этапа - 60 баллов для этапа 1- 70 баллов, а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а на управление функциями необходимо набрать 80 из 100 баллов и 70 баллов за вождение на дороге.

На самом дел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очень трудно пройти весь процесс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наши дни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получают права в автошколах.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было бы хорошо так ж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автошкол.

<한글 기사 4면>

장울가 기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으로 만든 레진아트 자조모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손으로 만든 레진아트 자조모임' 수료식을 유한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손으로 만든 레진아트 자조모임'은 베트남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한대학교에서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됐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드는 활동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활동이 줄어들어 답답했는데 레진아트를 만들며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원하는 결과물도 나와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커피공방 바리스타 기초반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통번역 서비스·통역 서포터즈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활동으로 베트남 이주민 현장 방문 통번역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일상생활 동행 통역지원으로

부천시 이주민 대상이다. 부천시 관내 외로 베트남어를 지원하며, 신청은 센터(070-4457-6105)로 하면 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습관, 언어,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기관 대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며 내방, 전화, 출장, 이메일 등 서비스 방법은 다양하다. 서비스 언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다.

서비스 내용은 ▲입국 초기 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상담 요청 시 파견 통역 ▲행정, 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역 ▲보건소,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결혼이민자 자녀 유치원, 알림장, 안내장 통번역 ▲생활 상담, 구직 상담 통번역 등이다. 통번역 서비스를 원하면 전화(070-4457-6106, 중국어/070-4457-6107, 베트남어)나 팩스(032-325-1371)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는 12월까지 제공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희망 장학금 오정서-국제로타리 부천다사랑RC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최은정)와 국제로타리3690지구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회장 김수경)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5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부천오정경찰서와 MOU를 맺은 국제로타리3690 지구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이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 중 하나로 평소 성실하고 학업에 충실한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 김수경 회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자리여서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며, 더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로타리클럽이 되겠다"고 전했다.

부천오정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에서 보내주시는 사랑이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희망의 스위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큰 열매를 맺어 로타리의 순환의 의미처럼 학생 여러분 또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우리 경찰관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과 사랑을 어떻게 쏟아낼지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오정경찰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과 부천오정경찰서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랑의 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일상에 활력 채울 체육용품 지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 전달식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지난 11일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에 일상생활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집에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체육용품 꾸러미를 준비하여, 1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부천시 체육회 석인홍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두고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백운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진행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체육용품 꾸러미는 2가지로 총 100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체육용품 꾸러미는 배드민턴 세트 50개와 밸런스보드, 요가매트, 탭볼로 구성된 홈트꾸러미 50개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베트남 이주민
현장방문 통·번역 지원**

내 용: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일상생활 동행 통역 지원

대상자: 부천시 이주민 누구나
장 소: 부천시 관내외 (경기도 지역)
언 어: 베트남어
전화 번호: 070-4457-6105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de with MANGOBOARD

Áp dụng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nhằm bảo vệ quyền lợi của trẻ em

법무부, 아동권리 보호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Bộ tư pháp có thông báo mới nhất về những chế độ để đảm bảo quyền lợi dành cho trẻ em,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thông qua bài viết này nhé!

Mặc dù đã được sinh ra nhưng trên pháp luật các trẻ em này vẫn chưa được sinh ra một cách chính thức, theo tổng kê con số này lên đến hơn 70 trẻ trên một năm. Khi trẻ không được đăng kí khai sinh, trẻ sẽ mất

đi quyền cơ bản như tiêm phòng vaccin mà bất kì một công dân chính thức nào sau khi sinh ra cũng được hưởng. Ngoài ra trẻ cũng mất đi những ưu đãi trong mảng giáo dục. Hơn nữa, vì trẻ không được pháp luật bảo hộ do đó nếu trẻ bị bắt cóc, vv thì quốc gia cũng không thể can thiệp.

Nếu vậy thì tại sao lại vẫn còn xảy ra việc trẻ không được đăng kí khai sinh?

Theo luật Gia đình điều 46(Nghĩa vụ của người đăng kí khai sinh) ① Khi hôn nhân còn tồn tại giữa bố và mẹ của trẻ thì người đi khai sinh sẽ phải là bố hoặc mẹ của trẻ, ② Trẻ được sinh ra trong tình trạng hôn nhân của bố và mẹ không tồn tại thì người đi khai sinh sẽ là mẹ của trẻ.

- Theo luật pháp hiện hành, trẻ được sinh ra sau khi cha mẹ ly hôn nếu mẹ của trẻ không đi đăng kí khai sinh hay mẹ của trẻ không xác nhận được hành tung thì bố của trẻ cũng không có quyền đăng kí khai sinh.

- Khi bố mẹ của trẻ cố ý không đăng kí khai sinh thì quốc gia không thể xác nhận được trạng được sinh ra của trẻ do đó không thể bảo vệ trẻ trước pháp luật.

Nhằm ngăn chặn những tình trạng trên để những

tình trạng đó không còn xảy ra, quốc gia đã áp dụng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là chế độ mà các cơ quan y tế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việc trẻ được sinh ra cho quốc gia được biết và nắm bắt tình hình.

Khi quốc gia áp dụng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và đời sống sẽ tạo được những hiệu quả như thế nào?

▶ Khi áp dụng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quốc gia sẽ nắm bắt được tình hình những trẻ em không được bố mẹ đăng kí khai sinh do đó có thể thay thế họ đăng kí khai sinh cho trẻ

▶ Quốc gia có thể bảo vệ trẻ trong trường hợp trẻ bị bạo hành hoặc bị bắt cóc, vv

Ngày 11 vừa qua Bộ tư pháp đã có công hàm gửi tới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hằm đưa chế độ thông báo khai sinh này vào chế độ pháp luật của quốc gia, cụ thể là đưa vào Luật quan hệ gia đình. Trẻ em của một gia đình nào đó đều là con em của chúng ta. Hãy cùng chung tay bảo vệ các mầm giống tương lai của xã hội nhé!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출생신고 누락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송재호 의원, '가족관계등록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돼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8년 만에 발견된 '유령 소녀', 2020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로 사망한 사례, 올해 1월 친모에 의해 사망하고 일주일 넘게 방치된 아동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UN아동권리협약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

관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국가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검사·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독일 및 태국·베트남 등은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출생등록하는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분만에 관여한 자'가 출생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지 관할 시·군·구에 송부해 출생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출생신고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보호 범위에 아이들이 최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제도가 잘못됐고 개선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우리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

다"고 말했다. 또한 "누군가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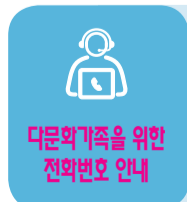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수홍 김영호 김의겸 남인순 맹성규 안호영 양이원영 윤관석 이상현 이원택 정성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추진에 되는 법안은 외국인 아동은 출생통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통보제는 외국인 등록 안 된 사람들은 배제하는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도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회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로 지내는 것은...”

슬기로운 한국어생활 시즌2 ‘김진명’ 한국어강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에서 근무하는 김진명 한국어강사는 한국어를 교육하며 만나는 수강생과 교육 과정에 대해 자문자답 형식으로 글을 기고했다. <편집자 주>

가르치나요?

A. 수업할 때 사용하는 교재는 기관 지정일 때도 있고 강사가 상의하여 선정하기도 해요. 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는 일이기도 해요. 높임말만 생각해 봐도 존경, 공경, 예의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출판되는 한국어 교재 대부분에는 이렇듯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문화, 정보 등이 수록되어있어요.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어를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은 강의실에 모일 수 없어서 학습자들 대다수가 집에만 있는데요,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화상 수업할 때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Q. 다문화가족 학습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무엇인가요?

A. 센터에서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분들이 많아서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업

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자녀 양육이나 취업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한국어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일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어나는 것은 배울 때 일정 수준 이상까지 하면 이후 생활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는데 중급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어버리면 기본적인 대화에 만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때 집중해서 배우고 바로바로 많이 사용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학습자들과 직접 만났을 때 반갑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화상 수업도 재미있게 하고 하나라도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할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습자들이 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강사인 저와 학습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모두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 여름방학 “랜선 북캉스 떠나요”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부천시립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부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부터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식문화 공유문화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오는 7월 3일 ‘스팀독서 위인편’을 시작으로 7~8월에 총 28개의 프로그램이 Zoom,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Thời kì hưng thịnh của ngành bất động sản, Hãy thử đăng kí chung cư được 'cung cấp đặc biệt'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ủa Hàn Quốc đang hoạt động sôi nổi hơn bao giờ hết. Trong nhiệm kì 4 năm của chính phủ hiện tại, giá căn hộ chung cư trên toàn quốc đã tăng khoảng 62% và giá căn hộ ở Seoul tăng khoảng 87% tỉnh Gyeonggi cũng không ngoại lệ.

Ngoại trừ một số khu vực có môi trường sống nghèo nàn, giá căn hộ đã tăng gần gấp đôi. Nếu giá bất động sản tăng mạnh như vậy, chỉ những người có nhà hoặc có đất, nói chung là bất động sản mới kiếm được tiền.

Những người không có tiền hoặc không mua chung cư không thể không cảm thấy bị ghen tỵ vì họ không được hưởng lợi nhuận chênh lệch giá cả.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nhu cầu mua căn hộ chung cư như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Thông thường nếu muốn mua chung cư tại Hàn Quốc, bạn phải sử dụng hệ thống đăng ký nhà ở, nhưng bạn phải tạo ra một "tài khoản tiết kiệm đăng ký nhà ở tổng hợp" và nộp trong một thời gian dài.

Hầu hết người dân trong nước sử dụng chế độ này để tiết kiệm hơn hai năm mới có được tư cách đăng ký mua.

Những hiện nay, người dân không cần phải trải qua những công đoạn khó khăn như trên cũng có thể đăng ký

mua nhà được. Chúng ta hãy cùng nhau đi tìm hiểu nhé!

Cung cấp đặc biệt là một hệ thống cho phép các căn hộ được bán mà không cần cạnh tranh với những người đăng ký chung cư để ổn định nhà ở của những người cần sự quan tâm từ chính sách của nhà nước và xã hội. Các hạng mục hỗ trợ được chia thành các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gia đình có nhiều con cái và gia đình có người cao tuổi. Theo quy định 'Cung cấp nhà ở' của Bộ Đất đai, Giao thông vận tải, có thể phân bổ dưới 10% nguồn cung cấp đặc biệt.

Cũng có nguồn cung cấp đặc biệt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là tầng lớp cần nhận được những sự quan tâm chính sách nên chính phủ đã cho phép bán căn hộ ngay lập tức cho các gia đình này. Tuy nhiên, số lượng thế hệ cung cấp đặc biệt đa văn hóa thường chỉ dừng ở thế hệ thứ hai nên phải cạnh tranh.

Ngay cả khi là một nguồn cung cấp đặc biệt, cũng có trường hợp cần một tài khoản đăng ký và cũng có trường hợp không cần. Trong trường hợp "Chung cư phân phối công cộng B-1 block của thành phố Anyang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được công bố vào tháng 7,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có công với quốc gia v.v... không cần

tài khoản đăng ký tiết kiệm mua nhà cũng có thể đăng kí mua nhà. Tuy nhiên,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ư dân Bắc Triều Tiên, quân nhân có thời gian công tác hơn 10 năm trở lên, lính giải ngũ, lao động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công chức, vv cần một tài khoản đăng ký kỳ được từ 6 tháng trở lên tính theo ngày đăng kí. Chỉ cần đáp ứng điều kiện này thì số tiền tiết kiệm trong sổ tiết kiệm không liên quan. Một điều kiện khác mà "Chung cư phân phối công cộng B-1 block" yêu cầu trong việc cung cấp đặc biệt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việc người đăng kí mua nhà phải không có nhà và phải sống ở cùng địa chỉ với vợ hoặc chồng từ hơn 3 năm trở lên.

Gia đình đa văn hóa muốn được nhận quyền đăng kí mua chung cư hãy nhanh chóng mở một tài khoản tiết kiệm dành cho việc mua nhà nhé. Việc cung cấp đặc biệt chỉ làm tăng tỷ lệ số người có thể được đăng kí mua chung cư chứ không làm giảm giá thành chung cư.

Khi nền kinh tế bất động sản không tốt,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mua căn hộ bằng nguồn cung cấp đặc biệt như trên. Tuy nhiên, trong thời kỳ giá căn hộ tăng mạnh như bây giờ, việc cung cấp đặc biệt đáng để chúng ta đầu tư đúng không nào. <한글 기사 5면> 강혜나 기자

기획 아키오의 한일역사 이야기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 반대



미야우치 아키오

일본 정부가 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한국 탈핵운동에 연대합니다.

우리는 일본 출신의 이주민이 중심이 되어 역사를 배우고, 일본과 한국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해결을 고민하면서 발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가는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기로 각의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 즉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일본의 '국책(國策-국가정책)'인 원자력산업은 무서운 에너지인 원자력을 평화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해치는 것과 맞바꿔서 이익을 챙기는 괴물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은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사고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성물질은 바다로 육지로 퍼져,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생활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몇 십 만에 달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4만~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원전사고 발생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년, 당시 일본총리였던 아베신조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언더 컨트롤(제어되고 있음)'이라며 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올림픽유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해 피해의 현실을 왜곡·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고, 혼잡한 틈을 타 오염수 해양방

출을 공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는 처리된 것이며 환경에 해가 될 위험성이 없고, 또 충분히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것이며 방사성핵종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을 걱정하고 강한 우려를 표하는 한국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오염수 반대' 의사가 '반일', '배일'주의가 되어 일본인, 재일코리아,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 부쉬'라는 타이틀로 일부 운동단체가 일본제품을 부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은 다양한 배경,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 정신을 다치게 하고 상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일본인, 재일코리아 및 그 아이들은 일본 정부의 폭거, 또 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항의 속에서 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2019년 No Japan 운동이 펼쳐졌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매일 학교생활에서 괴로운 마음을 안고 지냈습니다. 단지 일본과 관련된 부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아이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슬픈 경험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막기 위해, 이 땅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힘이 다하는 데까지 싸우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에서 탈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핵으로 인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모든 핵개발과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구리 역사동아리

房地产旺盛期, 多文化家庭挑战 “特别供应” 公寓

韩国房地产市场比任何时候都活跃。据悉, 现政府执政的4年里, 全国公寓价格和首尔公寓价格分别暴涨62%和87%。京畿道的情况也是如此。

除了居住环境恶劣的部分地区, 公寓价格上涨了近2倍。如果房地产价格如此大幅上涨, 只有拥有房子的人才能赚钱。没钱或没买公寓的人因为不能享受市价差额, 相对来说会感到失落。

因此, 多文化家庭也增加了购买公寓的欲望。一般来说, 在韩国购买公寓, 要利用购房申请制度, 办理“购房综合储蓄存折”, 并在很长一段时间进行储蓄。

大部分国人都会利用该制度, 通常存款2年以上后获得预约资格。

而不需要经过这样复杂的过程就可以直接挑战购房申请的就是特别供给制度。特别供给是指, 为了需要政策性、社会照顾的阶层的居住稳定, 不与一般申购者进行竞争, 让其购买公寓的制度。援助项目分为新婚夫妇、多子女、赡养父母等。根据国土交通部令《关于住宅供给的规则》, 一般供应量的10%以下可以安排为特别供给。

还有多种文化特别供给。由于多文化家庭也是需要政策性照顾的阶层, 因此政府决定让其直接购买公寓。但是多

种文化特别供应家庭数一般只有2代左右, 因此要进行竞争。

即使同样是“特别供给”, 也存在需要购房综合储蓄存折的情况, 和不需要的情况。

京畿道安城阿阳B-1区公共商品房的公告将于7月发布, 地方政府搬迁居民、残疾人、国家贡献者等无需购房综合储蓄存折。

但是, 多文化家庭、脱北居民、服役10年以上的军人、退伍军人、中小企业劳动者、公务员等需要在加入6个月之后, 每月缴纳, 并进行6次以上的购房综合储蓄存折。只要满足这个条件, 与存折储蓄额无关。

“安城阿阳B-1街区公共商品房”多文化特别供应的另一个要求是没有房子的无住宅, 以及与配偶在同一住址居住3年以上。

希望获得购房资格的多文化家庭, 从现在开始也应加入购房综合储蓄存折。

特别供给只是提高公寓的中奖概率, 而不会对公寓进行价格优惠。

因此, 在房地产景气不好的时候, 不一定要以特别供给来购买公寓。但是像现在这样公寓价格大幅上涨的时期, 可以挑战特别供应。〈한글 기사 5면〉

왕그나 기자

지방자치부활 30주년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카자흐스탄과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부천시 방문, 다양한 논의 진행



부천시는 지난달 24일 바쿿 듀센바예프 (Bakyt Dyussenbay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부천시에 방문하여 부천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현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로봇, 스마트 주차 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영상과 콘텐츠가 강점인 도시 자원을 활용하여, AI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전략, 능동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지원할 논리적인 Network 인프라 및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AIDC,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Center)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통해 데이터 접근에 있어 소외 계층이 없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하나의 공유경제플랫폼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All-in-One 서비스로 풀어가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바쿿 듀센바예프 (Bakyt Dyussenbayev) 대사는 “부천시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천시와의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쿿 듀센바예프 (Bakyt Dyussenbayev) 대사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안전,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스마트 주차, BIS), 빅데이터 및 데이터센터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Almaty city)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K-City Network’ 사업 국제 공모에 신청한 바 있으며 부천시와 함께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До 21 числа проводится набор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ограмм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криэйторы Кёнгидо. Об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Поддержка в наставничестве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криэйторов и специальные лекции, создании контента и оплата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оздание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идеоконтента в основном на YouTube становится новой професси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нтерес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 создателям видеоконтента, криэйторам растет.

Кёнгидо и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контента набирают 30 команд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криэйтор Кёнгидо", которая поддержива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идеоконтен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риэйтор» -эт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автор,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вои фото и видео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Типичным примером явля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вещание на YouTube или Afreeca TV.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могут стать члены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и старше, этниче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асте от 14 лет и старше, этниче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 принявшие гражданств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а так же иностранные учащиеся, обучающие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или владельцы бизнеса или сотрудники, ведущие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ёнгидо.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нлайн до 21 июня 11:00, индивидуально или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до 3 человек. В команде может быть один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е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не является ни члено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ни этниче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м. Кёнгидо путем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и собеседований отбирёт 30 команд.

Эта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ит из онлайн-обучения для криэйторов и созданию контента. Онлайн-классы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осм

отр VOD и онлайн-уроки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и т. д,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сокую концентрацию с двусторонним обучением. Кроме того,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ит участникам изучить общие основы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иночного криэйтора, например, планирование контента, съемка, защита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обучение редактированию.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созданию контента и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криэйторов.

Обучение я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ым, а депозит в размере 100.000 won полностью возвращается после прослушивания лекций на 70% или более. После онлайн обучения в течение примерно 1 месяц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инструкторами-криэйторами, отдельно оплачиваются расходы на твор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 каждый из 3-х созданных роликов в течении 3-х меся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ёнгидо сказал: «С помощью образования с учетом уровн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лиц и через создание контента, мы расширим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одиночных криэйторов». «Мы планируем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ент,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еж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и общению в провинции,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о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ах и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хорошее влияние», - сказал он.

В программе стои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 в создании видеороликов на различные темы, на пример, знакомящие с культурой своей страны и т.д.

<한글 기사 2면>

장올가 기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동반역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습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기관
서비스방법	내방, 전화, 출장, 이메일 등
서비스언어	중국어 / 베트남어
서비스기간	1월 ~ 12월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상담 요청 시 파견 통역 • 행정, 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역 • 보건소,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 결혼 이민자 자녀 유치원, 일람장 안내장 통번역 • 생활 상담, 구직 상담 통번역
신청방법	전화, 팩스 또는 내방 신청서 작성 • 070-4457-6106 (중국어) • 070-4457-6107 (베트남어) • 팩스번호 : 032-325-1371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 (원미동) • 대중교통 이용안내 - 지하철 1호선 부천역(북부역) 4번 출구 - 3번, 5-5번 56번, 56-1번, 013-2번 => 풍림아파트 하차 - 지하철 1호선 소사역(북부역) 2번 출구 - 60번, 95번 => 석왕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차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과 화합 높인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가족사랑의 날 '숲속 오르골 무드등 만들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가족사랑의 날 4회기 '숲속 오르골 무드등 만들기'를 진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수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날인 '가족사랑의 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숲속 오르골 무드등 만들기'는 오산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체험은 6월 23일 각

가정에서 이뤄진다.

센터 관계자는 "건강한 가족 여가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 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숲속 오르골 무드등 만들기'는 오산시 거주 가족 중 초등학교생(8세~13세) 속한 가족 9가정 대상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키트는 신청한 가정으로 택배 발송된다.

체험 후 후기를 SNS(인스타, 페이스북, 오산맘카페)에 남기면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osanhfsc>)에 우수체험 후기를 남긴 링크를 댓글로 작성해 3가정을 선별하여 아이스크림 쿠폰을 준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이중언어 부모코칭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 및 훈육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코칭은 육아에 지친 다문화 부모를 위로하고 자녀 양육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며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양육 방법 및 훈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코칭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생(0~13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10명 대상이며 오는 26일 오전 10시와 낮 12시 2시간 동안 2회기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센터나 대상자 가정에서

온라인(zoom), 비대면 키트로 진행되며 다문화자녀의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등을 알려준다.

'다문화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알려주는 1회기는 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긍정적 훈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2회기 '다문화 어머니 힐링 워크숍'에서는 플라워디퓨저 이론강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070-4918-9173) 및 방문 접수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 부모코칭은 영유아 발달단계 이해 및 긍정적 훈육 방법을 알려주고 디퓨저 만들기를 통한 다문화가정의 부모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截止到21日募集京畿多文化创作者

教育费用免费...现职创作者指导、特别讲座、文化信息创作活动费支援

最近以youtube为中心,制作并提供视频等文化信息的工作成为新职业.因此,外国居民对影像创作也非常关注.

京畿道和京畿文化信息振兴院为了支援多文化家庭等的影像内容活动,招募30组「京畿多文化创作者」.

“创作者”是指将自己创作的照片、视频等通过网络提供给大众的个人创作者.活跃在youtube和非洲TV的一人广播就是代表性的例子.此次项目的对象为14岁以上的多文化家庭成员、高丽人及入籍者,即京畿道居民、京畿道所在学校的再校生、休学生,企业经营者或在职人员即可.

希望参加者可在6月21日上午11时之前,以个人或最多3人的小组在网上进行申请.如果在韩国语运用方面有困难的话,组员中即使不是多文化家庭成员或高丽人,限一名也可以参加.京畿道通过书面材料和面试等审查最终选拔30个组.

此次教育课程由创作者在线教育、文

化信息制作活动等构成.网上授课被设计成VOD视听和实时在线授课等集中度较高的双向教育.另外,让学生们熟悉文化信息企划、摄影、著作权、编辑教育等与1人创作者活动相关的全面基础.还特别为现职撰稿人提供文化信息制作咨询和指导等.

教育费是免费的,交10万韩元的保证金,在接受70%以上教育时全额返还.另外,创作活动费也将接受为期1个月的专门创意讲师组的网上教育,并在3个月期间制作3部视频时,分别进行支付.京畿道相关人士表示!“针对多文化人通过不同水平的教育和文化信息制作活动,将增加多文化1人创作的机会将增加”;制作的文化信息带动道内跨文化交流和沟通多文化和认知改善线的影响力传播积极支援,以便方针.”

对介绍祖国文化等多种主题的影像制作感兴趣的多文化家庭可以积极参与.<한글 기사 5면>

왕그나 기자

6월 이중언어 부모코칭

'다문화 자녀의 긍정적인 훈육방법 & 다문화 어머니 힐링워크숍'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코칭&다문화 어머니 힐링워크숍]은 다문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양육방법 및 훈육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준비한 부모교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1년 6월 26일(토) 10:00~12:00, 12:00~14:00

내 용	
6.26.(토) 10시 ~ 12시	
- 영유아 발달 이해 - 자녀의 긍정적 훈육방법	
6.26.(토) 12시 ~ 14시	
- 플라워디퓨저 이론강의 -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대 상: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교생(0~13세)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부모 10명
강 사: 홍정은(꿈터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엄선미(렘센트 대표)
지행방법: 온라인 플랫폼 ZOOM
 - 사전 입장은 9:30~부터 가능합니다. 사전 입장하셔서 스피커, 카메라 체크해주세요. (웹캠이 없는 PC로 입장 불가)
신청방법: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 (070) 4918-9173
신청기간: 2021. 6. 14.(월) 09:00 ~ 6. 22.(화) 18:00 (선착순 마감)
문 의: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동방 (070) 4918-9173

재한 외국인 통해 '경기바다' 알린다

18개국 20명의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선정



경기도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경기바다 여행주간'(6월 14~20일)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SNS 홍보단 및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우선 '경기관광 외국인 서포터즈'는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는 18개국 출신 재한 외국인 20명을 선발, 오는 11월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각종 행사 등을 개인 SNS 채널에 소개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 서포터즈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에 경기바다 인접 5개시(안산, 시흥, 평택, 화성, 김포)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벌인다. 평택호 관광단지, 시흥 오이도 등의 관광지를 답사하고 안산 해양안전체험관,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체험, 화성 갯

벌체험 및 전곡항 요트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긴 후 외국인의 시점에서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주한미군, 유학생 등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바다 투어버스'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해안권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에 맞춰 5개시(안산, 시흥, 평택, 화성, 김포) 9개 코스를 돌며, 체험형 관광상품도 운영한다. 도는 투어버스 이용자의 입소문을 통한 경기바다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참여문의는 경기관광공사(031-259-4714)로 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SNS 서포터즈 및 재한 외국인 등을 통한 경기관광 해외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바다 여행주간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경기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문화 차상위 계층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공연, 영화부터 스포츠까지!"

신청자격	지원내용	이용방법
<p>신청자격</p> <p>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15.12.31.이전 출생자)</p>	<p>지원금액</p> <p>1인당 연간 10만원</p> <p>발급 · 이용기간</p> <p>발급기간: ~'21.11.30. 이용기간: 발급일~'21.12.31.</p>	<p>이용처</p> <p>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p> <p style="background-color: #FFD700;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가맹점 상세보기</p> <p>재충전방법</p> <p>☎1544-3412 전화 연결</p> <p>1. 만 14세 이상 2.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4. 알뜰폰 사용자: LGU+만 가능</p> <p>※ 자동재충전은 '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21년 지원금 지급</p>
<p>신청방법</p> <p>1.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www.mnuri.kr/ 또는 앱 다운로드</p> <p>※ 농협 영업점에서 사전 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령 여부 확인 필요</p> <p>※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 재발급은 지정수령 불가</p>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mnuri.kr/help/counsel/guide.do | ☎ 1544-3412
| 잔액조회 · 분실신고 · 수령등록 ☎ 1644-4000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8. 나물과 전

대화-은숙씨 네 집에서



안진숙

은숙 : 리엔 씨, 지난 번에 준 반찬 잘 먹었어?

리엔 : 남편이랑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메이 : 어떤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숙 : 나물 반찬 3가지, 멸치 볶음, 계란 장조림을 만들어 주었어.

민정 : 은숙 언니는 반찬 솜씨 정말 좋아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은숙 :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반찬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리엔 :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요.

메이 : 그럼 오늘 어떤 반찬 만들 거예요?

은숙 : 오늘은 나물 3가지랑 전을 좀 하려고 해.

메이 : 그럼 지금 장을 보러 갈까요?

리엔 : 저도 같이 갈게요.

민정 : 일단 오늘 만들 반찬 결정을 하고 재료 양도 결정해야 하나까 메모를 해 보자.

은숙 : 내가 정해 줄게. 오늘 만들 나물은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로 나물을 만들 거야, 그리고 전은 김치전, 부추전, 애호박전을 만들려고 해.

메이 : 저는 지난 번에 먹었던 달래 무침도 참 맛있었어요. 그것도 배우고 싶어요.

은숙 : 그럼 반찬 종류는 다 정했으니까 시장으로 출발하자.

민정 : 전에 같이 넣을 재료도 필요하겠어요.

은숙 : 그럼 오징어랑 소고기도 조금 사서 같이 넣어서 만들면 좋지.

메이 : 전을 만들어 두었다가 저녁에 남편이랑 막걸리 한잔 하면 좋겠어요.

민정 : 메이 씨는 이제 한국 사람 입맛을 잘 아는 것 같아.

리엔 :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서 먹고 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대화에 대한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나물'은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또는 채소를 조미하여 만든 반찬'이고, '전'은 '재료를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을 묻힌 후 기름에 지진 음식'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여 나물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겼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의 표현 - 나물과 전

나물: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또는 채소를 조미하여 만든 반찬

전: 재료를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을 묻힌 후 기름에 지진 음식

■ 잔칫날이면 나물과 전을 넉넉히 해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풍습입니다.

한국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은 나물들입니다. 신선한 채소를 조미하여 만드는 나물은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좋은 음식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다양한 전을 만들어 즐겁게 먹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사찰음식

사찰음식은 절음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육식(肉食)과 인공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는 채식(菜食) 음식을 말합니다. 불교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소박한 재료를 가지고 자연의 풍미를 살려 독특한 맛을 내고, 음식은 끼니때마다 준비하며, 반찬의 가짓수는 적게 만듭니다. 요즘 채식이 유행인데 사찰음식은 가장 대표적인 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만의 특별한 사업으로 앞서가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 가정 대상 노무상담사업, 복합적인 어려움 지원하는 통합사례회의 등 눈길



노무상담사업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노무 상담 신청자를 매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무 상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맞벌이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노무 관련 문제 해결 및 채용, 임금, 산재 등 노동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

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031-949-9161

통합사례회의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18일 2021년 제1차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합사례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관은 ▲파주 교육지원청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경찰서(여성청소년계) ▲고양이민자통합센터 ▲민들레지역아동센터 ▲파주엑소더스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등이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파주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현황, 알코올중독 관련 정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정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례에 대한 개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주시 내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유

지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사업

파주시 아이돌봄팀은 최근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지원사업 홍보를 진행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등에 따른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시간제로 제공한다.

질병감염은 법정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센터 측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후기작성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송하성 기자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맘카페 놀이키트 '플레이콘으로 놀자' 배부...20일까지 신청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미취학 영유아(12개월~미취학 아동) 100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플레이콘으로 놀자' 키트를 배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제작·제공한다. 플레이콘으로 놀자 키트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구성된 놀이세트

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플레이콘으로 완성한 작품을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면 우수 활동자에게 소정의 선물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부모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juscc.or.kr/>)를 통해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선정된 가정은 21일부터 25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문산행복센터 4층 아이러브맘카페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놀이키트가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파주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무료노무상담

일하는 엄마·아빠의 직장 내 문제를 공인노무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대 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상담내용 노동법률 전반(채용, 임금, 산재 등)

운영기간 2021년 2월 ~ 11월

신청방법 전화접수(선착순)

am 9:00 - pm 18:00

상담문의 | 031-949-9161~4

신민대학교 PAJ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021년 외국인주민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권 감수성

- 인권과 다문화 이해
- 인종차별 협약 소개
-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흐름

일시	2021. 6. 23.(수) 10:00~12:00 2021. 6. 24.(목) 10:00~12:00
대상	파주시민, 기관 종사자
장소	실시간 온라인 Zoom (비대면)
접수	1.031-949-9164 pmfsc@hanmail.net

원단체 및 개별 접수 가능합니다.

신민대학교 PAJ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최근 후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경기북부에 거주중인 부부

일 정 : 7월 7일(수) ~ 9월 3일(수) 총 10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내 용 : 비대면(ZOOM) 프로그램-무료 키트 제공
힐링원예, 소원젠가, 뇌구조 활동 키트,
무료 개별 심리상담 등

신 청 : 선착순 전화접수 031-949-9161~4
*참가자 전원 소정의 기념품 증정

신민대학교 PAJ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hững thông tin về Thư viện sách điện tử của tỉnh Gyeonggi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새 전자책 1710권 추가...다문화가족도 원하는 책 편리하게 이용

Thư viện sách điện tử của tỉnh Gyeonggi được thành lập từ năm 2001, đến nay thư viện đã được tròn 20 năm hoạt động. Như các bạn đã biết Thư viện là nơi bảo quản những cuốn sách từ rất nhiều những lĩnh vực khác nhau, khi nói đến Thư viện chúng ta thường nghĩ ngay đến những kệ sách cao cùng những cuốn sách đa dạng.

Xã hội ngày càng có những chuyển biến nhanh chóng dẫn đến việc các cơ sở điều hành cũng sẽ phải thay đổi cách quản lý của mình để phù hợp với xu hướng hiện tại. Trong thời đại công nghệ hóa khi mà con người không còn nhiều thời gian cho những thú vui đọc sách giấy của mình thì Thư viện đã mở ra một chế độ hoàn toàn mới. Đó chính là sách điện tử.

Sách điện tử rất phù hợp với xu hướng phát triển hiện tại của giới trẻ, đặc biệt là những người có thói quen đọc sách nhưng lại không có nhiều thời gian trong việc đọc sách giấy. So với đọc sách giấy, sách điện tử thuận tiện hơn rất nhiều. Đọc sách điện không yêu cầu không gian quá cầu kì. Chỉ cần thiết bị điện tử của các bạn được kết nối Internet thì bất cứ nơi nào, bất cứ lúc nào các bạn cũng có thể truy cập và đọc. Đọc sách giúp chúng ta trau dồi kinh nghiệm, cung cấp cho chúng

ta những thứ mới mẻ, định hướng cho chúng ta thiết lập những kế hoạch dành riêng và phù hợp với hoàn cảnh của mình. Không những thế đọc sách còn giúp chúng ta học được thêm nhiều điều bổ ích mang lại những giá trị thực tiễn giúp tăng khả năng suy nghĩ và đa dạng hóa trí tưởng tượng của chúng ta.

Nhằm mục đích mở rộng thêm về nét văn hóa đọc sách, Thư viện sách điện tử tỉnh Gyeonggi đã được thành lập và hiện tại đang cung cấp cho quý bạn đọc rất nhiều những cuốn sách đến từ các thể loại phong phú khác nhau.

Ngày 9(hôm nay) Thư viện có kế hoạch cung cấp thêm 342 loại bao gồm 1710 cuốn sách tới quý bạn đọc. Quý bạn đọc có thể tải ứng dụng của Thư viện về các thiết bị điện tử của mình. Giới hạn sách cho mỗi bạn đọc đó là 10 cuốn. Thời gian được mượn sách sẽ là trong 5 ngày. Các bạn hãy cùng xem giao diện của Thư viện trên thiết bị điện tử nhé.

Sau khi tải ứng dụng Thư viện sách điện tử của tỉnh Gyeonggi về thiết bị điện tử của mình, các bạn hãy đăng nhập hoặc đăng kí thành viên mới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dịch vụ của Thư viện. Hoặc các bạn có thể đăng nhập(đăng kí) thành viên bằng cách liên kết với tài khoản của mạng xã hội khác như

Facebook hoặc Kakaotalk,vv như hình phía dưới.

Trong một số trường hợp khi các bạn không thể liên kết tài khoản Kakaotalk hay tài khoản Facebook với ứng dụng thì chúng ta sẽ phải tiến hành bước Đăng kí thành viên(회원가입). Giao diện của màn hình đăng kí thành viên như sau:

Trong giao diện Đăng kí thành viên, các bạn phải điền đầy đủ các thông tin cơ bản của mình vào phần hạng mục bắt buộc(필수사항), phần hạng mục không bắt buộc nếu như các bạn có nguyện vọng cung cấp thêm thông tin cá nhân của mình cho ứng dụng thì có thể nhập hoặc các bạn có thể bỏ qua. Sau khi nhập đầy đủ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các bạn hãy nhấn Hoàn thành đăng kí(회원가입 완료) ở phía bên dưới màn hình để hoàn thành việc đăng kí của mình nhé!

경기도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분기 개편을 맞아 9일부터 전자책 342종(1710권)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도입한 신규 전자책은 '공간의 미래'(유현준, 을유문화사) 등 이용자 희망 전자책 204종, '애린왕자'(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도서출판이팝) 등 신간 인기 전자책 138종이다. 해당 전자책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와 앱(APP)

을 이용해 한 사람당 10권씩, 5일 동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회원가입과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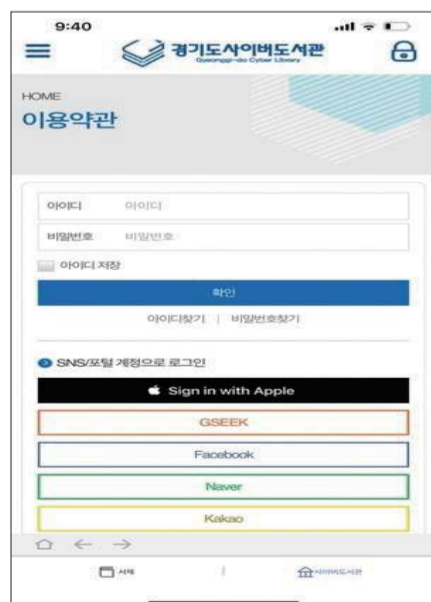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건강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민들이 희망한 전자책 등을 준비했다. 전자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1년 개관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지난달 기준 1만8600여종의 전자자료(전자책 1만6200여종, 동영상 700여종, 오디오북 1600여종)를 보유하고 있다. 누적 가입 회원수는 23만63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용자가 가장 많이 대출한 책으로 생태와 환경 분야의 고전으로 불리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꼽혔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책 대출 이력 103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침묵의 봄'이 559회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권기현의 '질문하는 힘'(548회), 3위는 데보라 엘리스의 '택시소년'(543회)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자책 대출건 수는 2019년 52만179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대출 순위가 높은 도서 대부분이 학생 교과 관련 지원 도서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이용률 증가를 반영했다.

강하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이해 높여요

중앙도서관, 도서관협력 세계문화프로그램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6월부터 10월 까지 관내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금촌무지개, 탄현작은),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꿈더하기, 도담, 동문그린, 백마), 공공도서관 3개소(금촌3동솔빛, 조리, 중앙도서관)와 ‘아삭아삭 문화학교-맛있는 세계여행’을 운영한다.

이는 중앙도서관의 협력프로그램으로서 금촌무지개도서관의 다문화강좌 경험을 기본으로, 9개 도서관 사서와 활동가들이 사전에 주제도서 토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강의 수강 등의 노력과 여러 번의 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기획해 발전시킨 것이다.

총 8개 국가출신의 강사와 함께하는 아삭아삭 문화학교는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중 언어로 책을 읽어 주고, 각국의

음식 문화를 매개로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9개 도서관에서 총 27회 진행되며 각 도서관은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컬렉션을 제공해 이를 추후 컬렉션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획에 참여한 금촌무지개작은도서관 김은영 사서는 “문화 다양성과 평등성을 도서관 공간에서 배우며 국가와 인종을 넘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명희 파주시중앙도서관장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다문화 강사, 이용자가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놀이가 쑥쑥! 즐거운 놀이교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 프로그램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양육 수요층과 보편적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이지도 프로그램은 전문 자격을 갖춘 놀이지도사가 부모와 자녀의 놀이활동을 관찰하고, 가족 성향에 맞는 적절한 놀이방법을 제시한다. 또 가정양육 상담을 통해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놀이지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

이러브맘카페 또는 장난감도서관에서 1:1 놀이코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정 내 놀이 영상을 촬영해 센터로 보내면 놀이지도사가 내용을 해석해서 놀이코칭을 제공한다.

참여대상은 18~60개월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센터 홈페이지(<http://pajuscc.or.kr/>) 또는 전화(070-4283-3310)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정은 매월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놀이지도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한 부모는 “놀이지도 덕분에 아이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아이에게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9년 8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놀이지도 프로그램은 총 65회(142명) 진행됐으며, 올해는 40회(96명)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이용기간: 1월~12월 연중 월~금요일(9:00~18:00)
- 언어: 베트남어(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에 있는 센터로 연계 지원)
- 내용:
 - * 개인·가족상담 및 병원 은행, 공공기관 이용 시
 - * 교육 자료 및 체류연장, 국적취득 관련 서류 번역
 - * 결혼이민자 관련 정보제공
- 이용방법: 전화 및 내방 신청 예약

☎문의 및 신청: 031-949-9164

※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facebook.com/pajuthongdich>

Fb: 파주시 배-한 통·번역



파주시다문화이주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노동 관리

- 임금 및 퇴직금 상담
-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상담
- 근로조건 및 계약 문의
-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 안내

출·입국 관리 및 보험 관련

- 출입국·체류에 관한 문의
- 고용허가제 4대 보험 문의
- 전용 보험에 관한 상담
-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
- 귀국 준비 관련

기타

- 인권침해 및 한국 생활 적응 상담
- 생활 고충상담 등
- 사고·폭행, 사기, 사망
- 의료 상담 및 통역

대상자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포함)
E-9, H-2, F-4, F-5, F-6 등

시간

평 일	일요일-목요일	09:00~18:00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장소

파주시 중앙로 229 (금촌동 782-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 교육청 앞 하차
9709,919,760,33,011,100-10,100-11,100-31,
92,065,064

파주시청(도보5분) 13,131,30-1,909,32,32-1,
15-1,12,14,773,9



전철: 경의선 금촌역 (도보 10분 거리)



www.facebook.com/pajuzul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원

알 단 줄/ALTANZUL



tulipzula



031-949-9161~4



한국어 잘 못 해도 괜찮습니다. 방문이나 전화해 주세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PAJ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군포 다문화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업과 통번역서비스·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오는 6월 19일 <2021년 6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군포시 7세~초등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각 과정당 3가족 10명 이내)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하루 동안 오전에는 중국 북경천안문을 주제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천안문 만들기(3D입체모형)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몽골 게르만들기를 주제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게르만들기(3D입체모형)가 진행된다. 11일부터 선착순 접수 중이다. 교육장소는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에 위치한 다가온(ON)이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다름’이라는 현상이 우리나라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 사례관리사업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한다.

사례관리사업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이며 정보 제공은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등이다.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는 대상자들이 센터와 지역사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 부모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등에 연계하고 물품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초기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센터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는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통해 가정과 한국사회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생활정보 제공, 행정 사법 공공기관 이용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도 의뢰 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연중 실시되며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베트남어는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언어는 타 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번역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군포시어린이도서관, 30일 어린이를 위한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 공연 예고

군포시어린이도서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번 공연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 공연은 개그맨 조래훈씨와 국제마술대회 챔피언인 마술사 최효원씨가 출연해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메시지를 선사하는 코미디 마술극이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기 위해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도서관측은 전했다.

공연 관람 신청은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한다.

군포시 최명수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공연과 다양

한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해 지역과 친밀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지역 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도서관정책과(031-390-86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2021년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부모는 처음이라서

- 아동기 자녀의 훈육과 갈등조율 교육 -

- 대상: 만 6세 ~ 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20가정
- 장소: 비대면 (webex),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진행
- 참여신청 방법: 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 접수 (다문화가정 해당)
- 참여 우선순위: 1순위 - 센터 신규 이용자, 2순위 - 다문화 가정
- 참여접수 기간: 6/16(수) ~ 6/30 11:00

세부 일정 및 내용

수요일 7/14 10:00-12:00	수요일 7/21 18:30-20:30	수요일 7/28 18:30-20:30	금요일 - 토요일 8/6
-------------------------	-------------------------	-------------------------	------------------

내가 생각하는 부모상? 부모-자녀 갈등해결책 자녀관 소리는 대화법 가족 포토케이크 만들기

(유의 사항)
- 신청 시 참가비용 인원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비대면 교육 시간에는 교육만 들으실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에는 녹화 방지를 위해서 비디오키프를 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3회기를 이수, 만족도조사 완료 시 '가족포토케이크'가 제공됩니다.
- 가족 포토케이크는 제작 과정이 원본과 색감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 포토케이크 제작 후 사진을 꼭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합니다.

문의: 031-395-1811 가족지원팀

다문화 자녀 모두 모여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모집 내용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표준화 된 검사도구를 언어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교육을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비용	무료	수업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기간	6개월 ~ 2년	내용	언어발달촉진, 발음, 읽기쓰기 지도
시간	주 1~2회 (40분)	교육형태	1:1 개별지도 or 동등수업
장소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독립된 장소 제공 필수)	신청방법	전화신청: 031-395-1811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문의사항 (다문화가정 2명 이상, 독립된 공간 제공 필수)

2021년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부모는 처음이라서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

- 대상: 만 6세 ~ 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20가정
- 장소: 비대면 (webex),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진행
- 참여신청 방법: 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 접수 (다문화가정 해당)
- 참여 우선순위: 1순위 - 센터 신규 이용자, 2순위 - 다문화 가정
- 참여접수 기간: 6/16(수) ~ 6/30 11:00

세부 일정 및 내용

토요일 7/3 10:00-12:00	화요일 7/6 10:00-12:00	목요일 7/8 10:00-12:00	화요일 - 금요일 7/12 ~ 7/16
------------------------	------------------------	------------------------	--------------------------

학교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예방교육 2 가족 포토케이크 만들기

(유의 사항)
- 신청 시 참가비용 인원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비대면 교육 시간에는 교육만 들으실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에는 녹화 방지를 위해서 비디오키프를 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3회기를 이수, 만족도조사 완료 시 '가족포토케이크'가 제공됩니다.
- 가족 포토케이크는 제작 과정이 원본과 색감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 포토케이크 제작 후 사진을 꼭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합니다.

문의: 031-395-1811 가족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 플랫폼 서비스 •

Papaya Story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иеме на работу

Кенгид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новости (www.danews.kr) и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Papaya Story Co., Ltd. запускают новую комплексн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латформ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и проводят набор сотрудников для творческой рабо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ижеуказанны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вашего участия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для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ок: 1 июня (вт.) -10 июля (сб.) 2021 г. PAPAAYA STORY

Обязанности

- Перевод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Консультация по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ю в Корее
- Анализ и оценка информации, касающейся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 Управление контентом и участниками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ругих услуг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е

- Лица, имеющие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компьютером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Лица, имеющие решительное желание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омощь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 Креативный 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 Лица со знани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уровне чтения газет
- Опыт устного и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является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м (независимо от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ли опыта)

Подача заявки

-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ок: 1 июня (вт.) -10 июля (сб.) 2021 г.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отправить резюме и биографию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danews1@daum.net)

Условие работы

- Зароботная плата: около 30млн. вон в год (3 месяца обучения)
- Место работы: город Енин Кихынгу Гугальро60 бонкиль9, Ровьяллаза, 5 этаж(수인분당선 기종역)

Процедура отбора

Просмотр документов-1-е собеседование-приём на работу

Сфера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дел набора персонала	Тип занятости	Набор
Китайский язык	Полная	1 человек
Вьетнамский язык	Полная	1 человек
Русский язык	неполная занятость	1 человек
Тайский язык	неполная занятость	1 человек

Вопросы

- Офис: 031-8001-0211
-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010-8002-0202

(주)파파야스토리

Dịch vụ thông ti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Papaya Story’ Thông báo tuyển dụng nhân viên

Tin tức đa văn hóa Gyeonggi (www.danews.kr) và công ty Papaya Story bắt đầu dịch vụ nền tảng thông tin tổng thể mớ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lựa chọn nhân viên làm việc sáng tạo theo từng ngôn ngữ. Mong rằng các bạn sẽ tham gia nhiều vào công việc hỗ trợ cuộc sống Hàn Quốc hạnh phúc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hời gian tiếp nhận: Ngày 1 tháng 6 năm 2021 đến ngày 10 tháng 7 PAPAAYA STORY

Công việc

- Dịch để cung cấp thông tin
- Tư vấn hỗ trợ sinh hoạt Hàn Quốc
- Phân tích và phân đoán thông tin sinh hoạt
- Quản lý nội dung và hội viên
- Công việc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khác

Điều kiện

- Người quen với máy tính và công việc IT
- Một người có ý chí và tinh thần trách nhiệ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 Người sáng tạo và có trách nhiệm mạnh mẽ
- Người có trình độ đọc báo bằng tiếng Hàn
- Ưu đãi những người có kinh nghiệm dịch thuật (không liên quan đến trình độ học vấn và kinh nghiệm)

Phương pháp hỗ trợ

- Thời gian tiếp nhận: Ngày 1 tháng 6 năm 2021 (thứ Ba) đến ngày 10 tháng 7 (thứ Bảy)
- Phương pháp tiếp nhận: Gửi sơ yếu lý lịch và bản giới thiệu bản thân qua email (danews1@daum.net)

Điều kiện làm việc

- Phụ cấp: Trước và sau 30 triệu won (thực hiện trong 3 tháng)
- Địa điểm làm việc: tầng 5 tòa nhà Royal Plaza, Yongin-si, Giheung-gu, Gugalro 60beongil 9

Thủ tục tuyển chọn

Sàng lọc hồ sơ - Phỏng vấn lần 1 - Đạt cuối cùng

Lĩnh vực tuyển dụng

Bộ phận tuyển dụng	Hình thức tuyển	Số lượng tuyển dụng
Tiếng Trung	Tuyển dụng chính thức	1 người
Tiếng Việt	Tuyển dụng chính thức	1 người
Tiếng Nga	làm thêm (làm việc tại nhà)	1 người
Tiếng Thái	làm thêm (làm việc tại nhà)	1 người

Liên hệ(LH)

- LH: 031-8001-0211
- DT: 010-8002-0202

(주)파파야스토리

面向外国居民的综合信息平台 Papaya Story

“木瓜故事” 招聘公告

京畿多文化新闻(www.danews.kr)和姊妹公司(株)木瓜故事开始了为外国居民提供新的综合信息平台服务,按照语言选拔有创意的职员。对于支援外国居民营造幸福的韩国生活的业务,希望各位移民多多参与。

-报名时间:2021年6月1日(星期二)-7月10日(星期六) PAPAAYA STORY

负责业务

- 提供信息翻译
- 韩国生活支援咨询
- 生活信息分析与判断
- 内容和会员管理
- 其他外国居民支援业务

资格条件

- 熟练应用计算机和IT业务
- 对支援外国居民具有热情和使命感的人
- 有创意和责任感的人
- 韩语水平要求,能够阅读报纸即可
- 有翻译经验者优先(学历和经历无关)

招聘领域

招聘领域	工作形式	招聘人员
汉语	正规职	1人
越南语	正规职	1人
俄语	和兼职(在家工作)	1人
泰语	和兼职(在家工作)	1人

工作条件

- 工资:年薪3千万韩元左右(实习3个月)
- 工作地址:龙仁市器兴区旧葛路60号9로얄프라자지5층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종역)

报名方式

- 报名时间:2021年6月1日(星期二)-7月10日(星期六)
- 报名方式:以电邮(danews1@daum.net)发送简历及自我介绍书

进行程序

- 书面材料审查
- 一次面试
- 最终合格

咨询电话

- 办公室:031-8001-0211
- 手机:010-8002-0202

(주)파파야스토리

บริการแบบฟอร์มข้อมู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Papaya Story’ ประกาศรับสมัครพนักงาน

สำนักข่าวทามุนฮวาคยองกี(www.danews.kr) และบริษัทในเครือ Papaya Story Co., Ltd. เริ่มให้บริการแพลตฟอร์มข้อมูลใหม่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คัดเลือกพนักงานเพื่อทำงานอย่างสร้างสรรค์ตามภาษาเราหวังเป็นอย่างยิ่งว่าจะได้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ชีวิตที่มีความสุข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เกาหลี

1มิถุนายน (อังคาร) -10กรกฎาคม (เสาร์), 2564 PAPAAYA STORY

หน้าที่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

- การแปลสำหรับการจัดเตรียมข้อมูล
-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ขีวิตในเกาหลี
- 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และ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มีชีวิต
- การจัดการเนื้อหาและสมาชิก
- บริ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ถิ่นที่อ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อื่นๆ

ข้อกำหนดคุณสมบัติ

- ผู้ที่คุ้นเคย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และงานไอที
- ผู้ที่มีแรงจูงใจและความสำนึกในหน้าที่ใ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อยู่อาศัย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 ผู้ที่มีความสร้างสรรค์และมี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
- ผู้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ระดับที่อ่านหนังสือพิมพ์
- ต้องการ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นการตีความและการแปล (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วุฒิการศึกษาหรือประสบการณ์)

วิธีการสมัคร

-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ปิดรับ: 1มิถุนายน (อังคาร) -10กรกฎาคม (เสาร์), 2564
- วิธีการสมัคร: ส่งประวัติส่วนตัวและแนะนำตนเองมาที่อีเมล (danews1@daum.net)

หลักการจ้างงาน

- เงินเดือน: ประมาณ30ล้านวอนต่อปี (การฝึกอบรมสามเดือน)
- ที่อยู่: ชั้น 5 รอยัลพลาซ่า 9 Gugat-ro 60beon-gil, Giheung-gu, Yongin-si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종역)

ขั้นตอนการคัดกรอง

การคัดกรองเอกสาร - การสัมภาษณ์ครั้งที่1 - สุดท้าย

สาขา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ส่วนทำงาน	ประเภท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จำนวน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ชาวจีน	เต็มเวลา	1 คน
เวียดนาม	เต็มเวลา	1 คน
รัสเซีย	พาร์ทไทม์ (ทำงานที่บ้าน)	1 คน
ไทย	พาร์ทไทม์ (ทำงานที่บ้าน)	1 คน

คำถาม

- สำนักงาน: 031-8001-0211
- 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010-8002-0202

(주)파파야스토리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광명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 가구 및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인 가구의 증 가 및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맛벌이가족 ‘우리가족 일심동체’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행복한가 족 프로그램으로 맛벌이가족 대상 ‘우리가족 일심동체’ 를 진행한다.

육아와 일로 힘든 맛벌이 부모를 위한 맞춤형교육 <화 를 내는 나는 나쁜 부모일까?>에서는 나와 자녀에게 맞 는 육아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총 2회기로 6월 23일과 24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기질검사 및 양육태도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6월 26일에는 가족 이 함께 수납형 스톨을 만들어보는<가족목공(스톨 만들 기)>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1인가구 식생활개선 ‘홈스토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 1인가구 식생활개선 요리 프로그램인 ‘홈스토랑’을 진행한다.

요리 유튜브 <요리티비>와 함께 나만의 혼밥요리 만

들어보기로 경기도 거주 1인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6월 30일 낮 12시까지 24명 모집하며 활동은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또는 일요일 오 전 11시 진행된다. 요리 주제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요리 주제는 ‘다이어트도 맛있게! 저염식 웰빙식단’과 ‘풍요로운 1인 혼밥식단’이다. 전액 무료며, 자세한 내용 은 전화(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한 경기도 1 인가구 맞춤형 건강솔루션 ‘나 혼자 건강하게 산다’를 진행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검진, 운동처방, 심 리상담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 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강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 검진을 15만원에 받을 수 있으며 1:1 맞춤형 운동처방, 1:1 심리상담, 요가와 크로스핏 등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을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1인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명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6265- 1366)로 하면 된다.

#싱글맘을 위한 ‘세상 모든 가족’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행복한 가 족프로그램으로 싱글맘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인 ‘세상 모든 가족’을 진행한다.

부모와 자녀 무료 기질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의 타고 난 기질을 알아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훈육 점검 및 육 아 고민 나누기, 아이와의 대화, 놀이 나누기 등이 6월 19일과 26일, 7월 3일 3차례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12시까지다.

부모 자녀 체험인 목공체험도 7월 3일 오후 1시30분 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 후 부모상담 희망 시 센터 전문상담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6월 18 일까지 받으며 신청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이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센터(02-6265-1366)로 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인, 부부, 가족상담을 월~토요일 진행한다. 평일 저녁과 토 요일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02-6265-1366)로 접수한다. 총 10회기 진행되며 비용은 3만원이다. 심리검사는 1건 당 5,000원을 내야 한다.

김영의 기자

광명건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도 광명도시공사 공유우산이 있어 걱정 없어요”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지난 9일 광명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유우산 보급을 위한 ‘지역복지증진 및 공 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유우산 보급사업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가 마련한 공유우산과 우산꽃 이를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광명시

관내 복지관과 노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해 갑작 스러운 우천 상황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 한 우산 소비를 방지해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추진했다.

김종석 사장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 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유우산 사업이라 더욱 의미가 있 는 것 같다”라며 “지역사회 문제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우산은 소화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립하안노 인종합복지관,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설치될 예정이며 우천 시 누구나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 1인가구 식생활개선 요리프로그램

1인가구지원사업

홈스토랑

요리유튜버 [요리티비]와 함께 나만의 혼밥요리 만들어보자!

유튜버 YoriTV 정발쌤

대상: 경기도 거주 1인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24명)

활동기간: 7/9(금)~8/6(금) (매주 금 19시 또는 일 11시)

요리주제 (주제 중 1개 선택)

주제1) 다이어트도 맛있게! 저염식 웰빙식단

주제2) 풍요로운 1인 혼밥식단

신청기간: 6/30(수) 12시까지

신청안내: 7/5(월) 선정자에 안내 개별연락

수강료: 전액무료!!

문의: 02-6265-1366 (오윤경 사회복지사)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서 바로가기

One-Stop!

경기도 1인가구 맞춤형 건강솔루션

나 건강하게 혼자 산다

증가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종합검진, 운동처방, 심리상담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강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15만원에 받을 수 있따구요?

☑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 1:1 맞춤형 운동처방

☑ 1:1 심리상담

☑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 (요가, 크로스핏)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신청바로가기

대상: 경기도 거주 1인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20명)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 ②신청서메일제출 ③전화신청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광명성애병원 클래식검진, 센터지원 40만원)지원

50만원상당!!

+본인부담 15만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 1:1심리상담, 운동프로그램 (무료!!)

문의: 02-6265-1366 (오윤경 사회복지사)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가족 간 갈등 상황을 경험 중이라면

개인/부부 가족상담

이용시간

월~토요일

*요일별 시간상이

*평일저녁/토요일 상담 가능

신청방법

전화접수 (02-6265-1366)

비용

총 10회기 진행 : 30,000원

심리검사 : 5,000원 (1건당)

안심하고 방문하세요

상담실 방역, 투약가침만 삼지, 문진표 작성, 상담실 출입 전 체온 측정 등

코로나 19로 부터 안전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재활복지회 광명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 결혼이민자, 밀키트 사업으로 스타트업 창업의 꿈 이룬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창업프로젝트 ‘START-UP’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창업프로젝트’ (START-UP)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및 창업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를 발굴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아동 요리지도사, 일일 플라마켓 등 다년간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자국 음식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자부심과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세계요리 밀키트 창업’을 주제로 (START-UP)을 진행한다.

〈START-UP〉 프로젝트는 ▲지식-up ▲빌드-up ▲워밍-up ▲정기모임 ▲시제품 품평회 ▲워크숍 과정으로 진행된다. 밀키트 창업 기초이해, 온라인창업 및 마케팅, 레시피 컨설팅 등부터 창업을 위한 허가, 법률사항까지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지식-up)과 밀키트 메뉴 개발을 위한 레시피 컨설팅(빌드-up), 모의 판매

실습 ‘플라마켓 운영’(워밍-up)으로 구성되어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월 1회 참여자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밀키트 제작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밀키트 모의 판매 실습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협동조합(밀키트 판매 업체)을 방문하여 창업의 꿈을 시각화하고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창업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남은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밀키트 창업 시장규모의 상승추세인 점을 언급하며, “교육을 통해 밀키트 분야의 전문 기술을 익혀 취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TART-UP〉 박수진 담당자는 “교육 과정을 통해 제작된 밀키트는 품평회와 플라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보일 예정이며, 밀키트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결혼이민자 자국의 음식문화와 이야기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몽골 출신 최모 씨는 “창업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며, 자국 음식으로 창업 과정이 진행되는 점이 흥미롭고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사업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START-UP〉 후원처인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005년부터 다문화가정,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개최 지원, 이종언어 인재 장학금 사업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군인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2021 행복한가족

강하고 아름다운 싱글맘을 위한

싱글대디를 위한 프로그램은 7월 운영 예정입니다!

세상 모든 가족

싱글맘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기질검사

타고난 우리아이의 기질은? 무료검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부모 1명, 자녀 1명 기질검사)

부모교육

- 또 다른 아이와의 대화, 놀이
- 우리 아이 얼마만큼 알고있나요?
- 혼육점검 및 육아 고민 나누기

6/19(토), 6/26(토), 7/3(토) 10-12시

부모자녀 체험

자녀와 함께 목공체험 미니 사다리선반 만들기

7/3(토) 13시30분-14시30분

부모상담

- 교육 후 부모상담 희망시 본 센터 전문상담 연계 (단,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무료상담 가능)

한국재활복지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상 모든 싱글맘을 응원합니다

- 부모교육** 내 아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는 싱글맘들을 위한 부모교육
1회-3회기: 6/19(토), 6/26(토), 7/3(토) 10-12시
- 자녀와의 목공체험 부모자녀 프로그램**
7/3(토) 13시 30분-15시30분
- 부모상담** 전문상담 연계를 통해 고민 많은 싱글맘을 위한 상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무료상담 가능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필수) 일정 추후 안내 (대기 기간 소요 될 수 있음)

모집기간 2021년 6월 18일(금) 11:00까지
신청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류 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메일 제출)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모자가정
*광명시 거주 우선(경기도민 신청가능)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ZOOM)

신청방법 구글 폼 QR코드 신청서 접수

문의 02-6265-1366 (김수정 사회복지사)

신청서 QR코드

한국재활복지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을 높이는 '다가온'

김포건가다가,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참여위원회 개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5월 27일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이 위치한 통진도서관 1층 다문화자료실에서 김연화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위원회는 2021년 신규위원 위촉증 수여, 다가온 공간운영방식, 기관 네트워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위원회는 김연화 센터장을 포함해 마송 중앙초 교감 김병삼 위원, 김포시 새마을회 이춘애 위원, 김포시체육회 김동규 사무국장, 김포통진도서관 김지윤 차장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2020년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사업 성과와 2021년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족에게 열린공간인 다가온의 운영 및 사업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가온(ON)은 지난 2019년 8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융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김포통진도서관 내에 조성됐다.

다가온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가족상담', '다문화 전시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가온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문화도서 이용'은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

행하고 있다. 다가온 도서 이용, 전시공간 관람 및 다문화 의상 및 놀이체험과 지역사회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하는 것으로 다가온은 장소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취미 자조모임'은 동화구연과 규방공예(조각보만들기)등을 통한 교육, 취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다문화와 비다문화 지역주민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함께 문화 및 관심사를 나누며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이다.

'가족상담'은 다가온에 상주하는 전담인력 및 상담사가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을 상담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시민은 전화(센터 031-996-5920, 다가온 070-4108-4965)로 신청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문화 도서 이용 전시공간 관람, 다문화 의상, 놀이체험은 열린공간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통진도서관은 3,000여권이 넘는 다문화도서를 구비해 다문화가족들의 도서대출이 편리하다.

이지은 기자

보드게임 활용 상담기법 역량강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6월 11일 오후 6시에 객원 및 자원상담사를 대상으로 제4차 자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자 모두 마스크착용 및 사전 발열체크,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제4차 상담사 자체역량강화교육은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 담당자이자 상담사인 강서연 씨의 '보드게임을 활용한 상담기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상담사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언어적 개입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전략들을 고민하게 된다. 이에 놀이기법을 가미한 매체상담인 보드게임을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예시가 진행됐다.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직접 보드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개인 및 가족상담을 비롯해 방임아동과 청소년 대상 상담에서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통합사업으로 앞으로도 가족문제예방 및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가족상담, 교육, 문화체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및 가족상담 신청은 031-996-5921, 사례관리상담은 031-996-5920으로 전화신청 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문해력 향상을 통한 진로 탐색 강좌 풍무도서관, 다문화가정 자녀도 참여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선정되어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초등고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을 통한 진로 탐색」 강좌를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떨까.

이 강좌는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능력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번 강좌는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 <5학년 5반 아이들>, <최기봉을 찾아라>,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책으로 진행된다.

말놀이와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배움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향상과 진로 탐색을 원하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ZOOM으로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impo.go.kr/pungmu/index.do>)에서 접수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031-5186-48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스마트 디지털기 정보화교육'도 김포건가다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디지털배움터 지정 교육 진행

온라인 (Zoom 활용)
가정생활과 정보화교육

대상 김포시거주 부모 누구나
방법 온라인 (ZOOM 활용)
준비물 스마트폰, 컴퓨터, 필기도구
교육일정 ※스크래치 코딩 실습을 위해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꼭 준비해주세요.

회기	일시	내용
1	6.16(수) 9:30-12:30	- 코딩의 개념 이해 / 블록코딩 맛보기 / 스크래치 준비하기
2	6.18(금) 9:30-12:30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1 (신비한 우주여행, 달 귀를 동동! / 신나는 Dance Battle)
3	6.23(수) 9:30-12:30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2 (여행을 떠난 곰, 어디까지 갔을까? / 척척박사로봇, 경주를 알려줘요!)
4	6.25(금) 9:30-12:30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3 (즐거운 옷 입히기 게임 / 내 마을대로 축약축약, 마법연필)
5	6.30(수) 9:30-12:30	-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4 (공룡들의 필레이 경주 / 개구리왕자의 반신을 도와줘!)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센터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가족사업2팀 031-996-5923)
연계 디지털배움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과학기술통신부의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청 정보통신과와 연계해 '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됨에 따라 6월부터 가정생활과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는 스마트 디지털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의 편의를 위해 집 근처 생활SOC에서 스마트

폰, 컴퓨터, 키오스크 등의 사용법 및 디지털기 기초 생활 심화과정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포시 거주 부모를 대상으로 '엄마 아빠가 배우는 코딩교육'을 6월 16일부터 총 5회기 진행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자녀의 온라인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의 디지털 사용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딩을 활용하며 가정 내 부모-자녀가 함께 소통하며 가족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총 5회기에 걸쳐 ▲코딩의 개념 이해 ▲블록코딩 맛보기 ▲스크래치 준비하기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 1,2,3,4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개인과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스마트 디지털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가정생활교육과 정보화교육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gimpo.familynet.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996-5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장기도서관, 7월 어린이데이 마법의 방방 웃음 팡팡!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오는 7월 6일 화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도서관 7월 어린이데이 「마법의 방방 웃음 팡팡!」 강좌를 운영하며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방송(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문어 목욕탕』, 『코끼리 미용실』, 『마법의 방방』을 쓰고 그린 최민지 작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선정 도서인 최민지 작가의 '마법의 방방'을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이야기를 떠올리고 구상하는 방법 및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마법의 방방이 떨어진다면?'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시까지 김포시 장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장기도서관이 오는 24일 16시부터 18시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도서관 어린이 강좌 「I'm 팔, 팔은 힘이 세요!」 강좌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방송(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팔죽 할멈과 팔빙수', '도서관에서 만난 해리', '조선의 왕자는 무얼 공부했을까?', '코끼리 서커스' 등을 저술한 광영미 작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31)5186-46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Tuyển Creator đa văn hóa đến hết ngày 2, Hỗ trợ miễn phí chi chí giáo dục, trao đổi trực tiếp mentoring, hỗ trợ chi phí hoạt động, vv 경기다문화 크리에이터 참가자 21일까지 모집

Trong thời gian trở lại đây việc tạo ra và cung cấp nội dung video tập trung vào YouTube đang nổi lên như một làn sóng nghề nghiệp mới. Do đó, sự quan tâm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ối với những nội dung video ngày càng tăng.

Tỉnh Gyeonggi và Cơ quan xúc tiến nội dung tỉnh Gyeonggi sẽ trực tiếp tuyển 30 đội tham gia "Người sáng tạo đa văn hóa tỉnh Gyeonggi" để hỗ trợ các hoạt động nội dung video bao gồm đối tượng là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reator' mang ý nghĩa là người sáng tạo cá nhân cung cấp cho chúng những bức ảnh, video mà bản thân đã tạo ra thông qua Internet. Đây là một ví dụ điển hình về chương trình một người hoạt động tích cực trên YouTube hoặc Africa TV.

Đối tượng tham gia lần này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độ tuổi từ trên 14,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dân tỉnh Gyeonggi, học sinh sinh viên hoặc doanh nghiệp kinh doanh.

Những người tham gia có thể đăng ký trực tuyến hoặc đăng kí theo nhóm hoặc tối đa là 3 người cho đến hết 11h ngày 21 tháng 6.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tham gia khó khăn trong việc sử dụng tiếng Hàn, một thành viên trong đội có thể tham gia dù không phải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người Hàn Quốc.

Tỉnh Gyeonggi sẽ lựa chọn 30 đội thông qua việc kiểm tra tài liệu và phỏng vấn.

Chương trình đào tạo lần này bao gồm đào tạo trực tuyến của những creator và hoạt động sản xuất nội dung. Các lớp học trực tuyến được thiết kế với sự tập trung cao độ cao như xem những VOD và các lớp học trực tuyến được phát sóng trực tiếp. Ngoài ra, chương trình còn giúp người tham gia học được toàn bộ cơ sở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sáng tạo những nội dung liên quan như lên kế hoạch nội dung, quay phim, bản quyền, giáo dục biên tập. Đặc biệt, nó cũng cung cấp tư vấn sản xuất nội dung của các creator đương nhiệm.

Chi phí giáo dục miễn phí và 100.000 won tiền đặt cọc sẽ được hoàn trả lại toàn bộ sau khi hoàn thành 70% khóa học hoặc hơn. Chi phí hoạt động sáng tạo riêng cũng được đào tạo cho một nhà sáng tạo chuyên nghiệp trong khoảng một tháng và được chi trả mỗi lần khi sản xuất ba bộ phim trong ba tháng.

Một nhân viên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sẽ tăng cơ hội hoạt động của các nhà sáng tạo đa văn hóa thông qua các hoạt động sản xuất nội dung và giáo dục theo tiêu chuẩn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đa văn hóa và các hoạt động sản xuất nội dung. Ngoài ra chúng tôi sẽ tích cực hỗ trợ để thúc đẩy việc cải thiện trao đổi và truyền bá nhận thức đa văn hóa mang tầm ảnh hưởng tốt".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nguyện vọng hay có quan tâm đến việc sản xuất video với nhiều chủ đề đa dạng như giới thiệu văn hóa quê hương hãy đăng kí tham gia nhé! <한글 기사 2면>

강혜나 기자



아이부터 조부모까지 즐거운 온온가족축제! 과천건가다가, 행복한 가족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N라인 온온가족축제

과천시는 지난 5월 29일,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ON라인 온온(溫穩)가족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 및 화상 앱을 활용했으며 가족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에는 사전 프로그램인 가정의 달 ‘편지쓰기 이벤트’에 선정된 15가정이 화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편지를 낭독하고 생생한 소감을 전하였으며, 사전 꽃길걷기 이벤트 참여가정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축제에 참여중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샌드아트 공연 등을 진

행하여 더욱더 풍성한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종천 시장은 “가족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친목과 사랑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가족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27일까지 ‘조부모를 위한 전지적 가족 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1년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부모 ▲학령전기 부모 ▲조부모 ▲3세대 가족 대상 프로그램 중 3번째이다.

조부모를 위한 전지적 가족되기 프로그램은 아동기, 초등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와 손자녀 10가족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비대면으

로 총 5회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중년기 이해와 조부모 역할 이해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간 이해 ▲놀이로 보는 손자녀 양육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등 매주 화요일(3회기) 오전 10시~12시에는 ZOOM으로 진행되며 7월 7~10일과 7월 14~17일에는 키트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손자녀와 함께 진행하는 문화활동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줌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부모는 센터에 29일 전까지 방문해 키트를 수령하고 zoom 활용 방법을 익혀야 참여가 가능하다. 02-503-0070

아이돌봄서비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종일제, 시간제/종합형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시간제로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문의 및 비용, 기타 문의는 아이돌봄팀 02-507-0073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 6월 프로그램 계획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비 고 (사업구분)
가족상담	연중	수시	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가족	-	-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놀이치료	연중	수시	놀이치료가 원하는 유아동	-	- 유아동 심리정서지원, 사회적 발달 및 적응 관련 놀이치료	가족관계
입양가족 심리정서지원	4월 15일 ~ 5월 6일	수시	관내 입양가정의 아동 및 부모	5가정	- 입양가정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맞춤형 상담(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사례관리 등 선택) 진행	가족관계
과천시 상담학교	4월 12일 ~ 7월 15일	접수완료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성인	과정별 20명	- 올바른 부모역할과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모코칭과정 8회기 - 부모진로코칭과정 8회기 - 부모NLP코칭과정 8회기 (각 과정별 자격증 발급)	가족관계
가족사례관리	연중	수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거주 가족 (다문화가족 포함)	-	-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 - 심층상담 및 필요지원 연계 등	가족돌봄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레미안슈르/부림동)	월~금 학기 중 (13:00~19:00)	접수완료	인근 거주하는 초등학생	레미안슈르 15명, 부림동 15명 (※인근지역 운영)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 지도, 요일별 프로그램 - 긴급 돌봄 운영 중	가족돌봄
조부모 역할 이해 및 손자녀 양육방법	6월 29일 ~ 7월 13일	6월 4일 ~ 6월 27일	손자녀를 둔 조부모	10가족 20명	- 중년기와 조부모 역할 이해 - 손자녀 발달단계 이해 및 양육방법 - 1-3세대 차이 및 갈등 이해교육	가족관계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소행성"	6월~12월	수시	관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1회/ 20명	- 지역 내 학교, 관공서 등 연계 기관 모집 - 성교육 강의, 성폭력 예방 인형극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풍덩이	월 4회 활동	수시	2~13세 자녀를 둔 가정	30가구	- 가족 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성 향상(그룹 별 놀이 및 체험 풍덩이 활동 시행) - 부모의 양육 효능감 향상(역량 강화 교육, 활동 교육, 전체 프로그램 시행)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 6월 프로그램 계획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비 고 (사업구분)	
세계를 잇는 다문화 친화교육	4월 19일 ~ 10월 29일	접수완료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회	-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 및 체험	가족생활	
탈승권 없이 즐기는 세계문화여행	매일 1, 3주	수시	관내 거주자 가정	8가정	- 세계전통 놀이 및 악기 꾸러미, 모자 꾸러미 등 택 대어(1주)	가족생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연중	접수완료	다문화가정자녀 6세~11세	3명	-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도	가족돌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육)	연중	수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각반별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	가족생활	
결혼이민자 기초단계 한국어교육	연중	접수완료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3명	- 초급단계 한국어 교육 지원 -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가족생활	
소소한 집콕생활	6월 5일, 12일, 19일, 26일	5월 10일 ~ 5월 21일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	10가정	- 애플민트 오감관찰&싱기, 식물과 나의 성장 - 호야토피어리 체험, 무알콜 모히또 체험, 자성예언	가족관계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6월~7월	5월 17일 ~ 5월 31일	영·유아를 다문화가족	6가정	-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바놀이코칭, 온가족 놀이 교실 - 자조모임 회의 및 이중언어 활용 활동	가족관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연중	접수완료	다문화가정 및 지역 유관기관	45가족, 유관기관 5곳	-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	가족생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제 · 종일제	연중	수시	과천시 민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통한 양육 지원 - 시간제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 종일제 이용시간: (기본)1회 3시간 이상	-
	학습 돌봄	연중	수시	과천시에서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6학년)	-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돌봄 활동가의 초등학생 전 과목 학습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연중	수시	과천시 만3개월~만 12세 이하 질병아동 및 시설아동	-	- 아동의 병인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기본)1회 2시간 이상	-

문의 02-503-0070 과천시 관악산길 58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로 이해하고 가족 행복을 키우는 소통, 함께 배워요

안양건가다가, 부모교육 프로젝트 ‘소통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운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 사진)는 2021년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부모교육 프로젝트1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소통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를 운영한다.

부모교육 프로젝트는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자녀 양육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통하는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된다.

센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부모 모

두가 육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모의 역할 수행은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나 현장 강의보다 집중도가 현저히 낮아 올해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쌍방향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의 하나로 바람직한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마음 읽기, 마음 열기, 마음을 나누며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바람직한 양육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창의형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미술 등 융합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자녀에게 올바르게 이

로운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부모교육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부모교육 프로젝트는 1회기로 지난 12일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 대해 온라인 교육이 이뤄졌으며 19일과 7월 3일 2,3회 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기 자녀 부모교육 프로젝트로 마련된 2회기는 ‘수용과 마음챙김으로 아이 키우기’란 내용으로 부모 대상 스트레스 관리하기, 수용, 마음 챙김 등에 대해 알려준다. 3회기는 부모·자녀 대상으로 ‘신체활동-몸으로 소통하기

창의 융합 활동’으로 우리 집 정원 꾸미기가 이뤄진다.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양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정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혁신과 변화로 수요자 중심 여권민원 서비스

민원인이 편리하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발급신청 시 대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안양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민원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온라인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권접수 예약서비스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해당 날짜에 예약전용 여권창구를 방문 대기 없이 발급 신청하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거두기 위함이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여권접수 사전예약 메뉴(누리집) 추가구축을 6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유아기 자녀 부모교육 프로젝트
“소통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 일 정: 6월19일~7월3일(매주 토)
♥ 진행방식: 각 가정 내 실시간 온라인교육
♥ 대 상: 5세~7세가 있는 맞벌이가정 부모(아빠 참여 권장), 자녀
♥ 내 용

[부모] 바람직한 양육 태도 > 양육태도 유형 > 바람직한 의사소통	[부모] 수용과 마음 챙김 > 스트레스 관리 > 수용, 마음 챙김	자녀와 함께하는 창의 융합 활동 > 신체활동 (몸으로 소통해요) > 창의 융합 활동 (우리 집 정원 꾸미기)
----------------------------------------------------	---------------------------------------------------	---------------------------------------------------------------------------

♥ 참가비: 무료
♥ 접 수: 홈페이지 신청 (<http://anyang.familynet.or.kr>) 선착순
♥ 문 의: 031-8045-5476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안내 ◆

1. 워킹맘 증빙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원증, 명함 등 택 1 사본 1부 제출 (메일: health46@daelim.ac.kr, 사진 첨부 가능)
2.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제출: 신청서 URL 공유 → 작성·동의 → 제출
3. 교육을 이수한 가족에 한하여 창의융합활동 재료 수령: 센터 방문

교육을 이수한 가족은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창의 융합 활동” 진행 한대요~!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청소년기 부모교육

“사춘기 자녀 이해하기”

대상: 청소년기 자녀(초등 고학년~고등)를 둔 부모 10명
비용: 무료
일정: 해당 일정과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용	참여방법	기타
1 회 기 06.28. (월)	청소년기 자녀 이해하기	기한 내 녹화영상 시청 (에드워드)	센터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부여
2 회 기 ~07.05. (월)	코로나 19 시대 청소년 인터넷 문화와 사이버폭력		
3 회 기 06.29. (화) ~07.10. (토)	자녀와 주고받는 메시지 램프 만들기	키트 재료 수령 후 가정 내 활동	1-2회기 교육 수료시 참여 가능

* 3회기 재료는 1~2회기 수료 후 센터로 방문해 수령하셔야 합니다.

접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anyang.familynet.or.kr) 또는 전화
문의: 교육상담팀 (031-8045-6392)

램프 만들기 예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서로에게 선물해보세요~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다른 점을 배우며 함께하는 다문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인식개선 이벤트 진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안양시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인식개선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고 있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가족명랑운동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전통놀이 체험부스도 운영해 매년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올해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신청을 받아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인식개선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여행 중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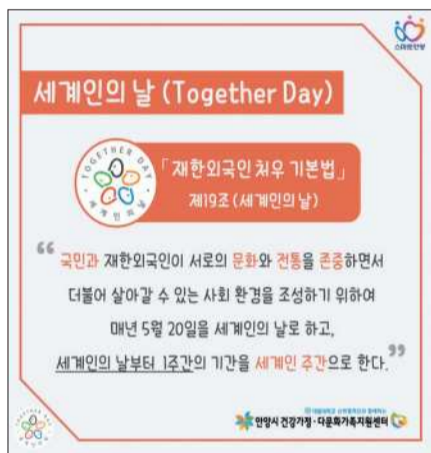
역이 담긴 음식을 개인 SNS에 소개하면 이주여성지원단체 토크미에서 제작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밑키트를 안양시민 50명에게 나누어주어 각 나라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또한 매년 5월 20일은 안양시 세계인의 날 임을 알리는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센터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3명과 동안경 찰서에서 함께 했다.

센터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안양시민들이 다문화에 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가 다 함께 행복한 안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인식개선 슬로건은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다른 점을 배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다문화’다.

김영의 기자



“스트레스 날리고, 행복은 높이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찾아가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맞춤형가정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은 안양시 관내 기업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장인에게 스트레스 관리와 힐링 지원 및 직장 적응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은 이제 꾸준한 증가로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일

과 생활 전반에 걸쳐 균형을 맞추려는 흐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일보다는 가정, 개인 생활이나 자기 계발, 삶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범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센터는 이에 문화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 지원, 직장생활 적응지원으로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과 상호협력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안양시 관내 기업.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키트 활용, 실시간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어린이집, 기업.기관 등 총 10곳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직장인의 심신 피로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직장생활 및 개인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및 힐링 지원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원예테라피 ▲힐링웃음체조 ▲치료레크레이션 등이 운영된다. 직장 적응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관계코칭 ▲성인권 감수성 키우기 ▲장애인 인식개선 ▲이미지 메이킹 ▲재무교육 ▲노무교육 ▲부모교육 등이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직된 일상에 활력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며 직장생활 및 개인의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어 일.생활 균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안양사랑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안양의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안양시는 7일 스마트폰의 앱(삼성페이)을 통한 안양사랑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안양사랑페이를 소지하고 다녀야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모바일 결제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앱에 카드 추가 후 안양사랑페이를 등록,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해당 앱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아이폰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안양사랑페이는 또 이달부터 20만원 이상 사용 또는 20만원 이상을 충전한 신규 이용자의 경우 소비지원금 5만원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이 5만원은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 다양한 가족 복리 위해 힘 모으다”

화성건가다가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업무 협약식 진행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난 6월 10일 화성시의 다양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이성호 병원장과 센터 위탁운영기관인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남수 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성시 관내 이주민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후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적 정보와 물적 자원 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에도 화성상공회의소, 화성동탄경찰서와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외국인 취약계층이 국내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267-8770

송하성 기자

화성시-ICT생활문화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개관해

화성 ICT생활문화센터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은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로얄앤컴퍼니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화성시가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고 시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을 완료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화성시 팔탄면 로얄앤컴퍼니(팔탄면 시청로 895-20) 바스스토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 ICT생활문화센터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은 연면적 3458.68㎡로 소공인 장비들이 있는 메이킹 그라운드, 메이커 스페이스(랩그라운드, R&D그라운드), 오픈그라운드, 강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인·창업인들과 전문기술을 갖춘 소공인들이 협업과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ACT GROUND’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조성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도 물론 이용할 수 있다.

화성 ICT생활문화센터에서는 향후 예술가, 시민, 창업가들을 위한 융복합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미디어아트 전시, 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전, 메이커톤 등 문화공연, 행사, 전시 등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융합 혁신 인큐베이터이자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경기 다문화 크리에이터

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다문화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형 교육

모집개요

모집기간 ~ 6. 21 오전 11시까지
모집정원 총 30명 (명)

- 개인 또는 팀 대표자 포함 최대 3인 지원 가능
- 팀 지원의 경우, 1,2 중 지원 가능
 -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동반 1인 (한국어 가능자) 포함 최대 3인
 - 교육 및 제작을 함께할 다문화 2인 포함 최대 3인

신청대상

1. 2 조건 모두 충족 필수
1. 만 14세 이상 다문화가족 구성원, 고려인, 귀화자
2. 경기도민(아래 중 1개 대상자)

-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학교 재/졸학생
- 경기도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및 재직자
- 중빙서류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경기도 거주·재학·재직 증명 가능 서류 등) 제출 필수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참가자 혜택

- 전문 강사진 무료 교육 (보충금 10만원, 70% 이상 수료 시 전액 환급)
- 현직 크리에이터 멘토링·육성
- 콘텐츠 창작 활동비 지급

문의

·다문화 문의: 경기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팀 Tel. 032-623-8094
·지원방법 및 커리큘럼 문의: 다문화 운영사 ㈜아프리카TV Tel. 010-9216-1712 / creatoracademy@afreecatv.com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http://www.gcon.or.kr) 내 알림마당 > 교육 및 행사 게시판 참조

활동일정

교육일정 7. 12 ~ 8. 2 매주 월/수/금 19:00 ~ 20:30

크리에이터 교육

교육방식 온라인교육 (VOD 120분 + LIVE 900분)
+ 교육기간 내 VOD 자유시청
+ 실시간 강의 통한 심화
일시간 강의 영상은 수강 기간 내에 한하여 다시보기 영상 제공

비하	과목명	과목비
0	7. 12(월)	오리엔테이션 LIVE 900분
1	7. 14(수)	미디어 테라피시 VOD 20분 / LIVE 900분
2	7. 19(일)	문화 다양성 이해 LIVE 900분
3	7. 19(일)	채널 영상 및 관리 VOD 20분 / LIVE 900분
4	7. 20(월)	콘텐츠 기획 VOD 20분 / LIVE 900분
5	7. 22(수)	촬영 장비 (MOBIE) LIVE 900분
6	7. 25(일)	라이브 방송 기술 (MOBIE) LIVE 900분
7	7. 28(수)	영상편집 (MOBIE) VOD 20분 / LIVE 900분
8	-	스피치 교육 VOD 20분
9	7. 30(금)	차지권 -상인지 VOD 20분 / LIVE 900분
10	8. 2(일)	크리에이터 특강 LIVE 900분

운영일정 8. 16 ~ 10. 31

- 콘텐츠 제작 미션 선정
- 현직 크리에이터 멘토 배정
- 기획안 및 콘텐츠 촬영, 제작 컨설팅
- 영상 제작 및 업로드 (3건 이상)
- 콘텐츠 창작 활동비 지급 예정 (최대 100만 원)

발표회일정 11월 중 진행 예정

제작발표회

2021 화성시 드림하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추가모집

누구를 모집하나요?
노래를 좋아하고 즐기는 초1학년~중2학년 다문화 또는 비다문화 학생 총10명

언제부터 모집하나요?
2021년 6월 14일 부터 7월 16일 까지

어디서 연습하나요? (2곳 중 1곳 선택)

- 병점 유엔아이센터 연습실
- 남양모두누림센터 연습실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

어떻게 지원하나요?

- 합창단원 신청서(네이버폼) 제출 QR코드 참고
- 자기소개영상 & 자음곡 1곡 녹음파일 메일제출 hscmfrc@daum.net

지도자와 센터의 제출서류 심사 후 단원선발 결과를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문의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1팀 ☎ 031-267-8816

不動産活況期、多文化家族もアパート ‘特別供給’ に挑戦してみても

특별공급 세대수 적어 경쟁 가능성 높아... 청약통장은 꼭 만들어 두어야 지원 가능

韓国の不動産市場がいつもにまして活況だ。現政府4年間で全国のアパート価格は62%、ソウルのアパート価格は約87%が急騰したといわれている。京畿道も例外ではない。

住居環境が劣悪な一部地域を除いてはアパート価格が2倍近く上昇した。このように不動産価格が大幅に上昇すると、家を持っている人だけが得をすることになる。

金銭的な余裕がなく、アパートを購入できなかった人たちは時勢差益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相対的な剥奪感を感じるだろう。

多文化家族もアパート購買を考慮する人たちが増えているようだ。一般的に韓国ではアパートを買うためには住宅請約制度を利用せねばならない。そして‘住宅請約総合貯蓄通帳’を作り、長期間納付することになる。

ほとんどの韓国人はこの制度を利用して通常2年以上の貯蓄をして請約資格を得る。

このような過程を経なくてもすぐに住宅請約に挑

戦できるのが特別供給制度だ。

特別供給は政策的社会的な配慮が必要な階層の住居安定のために、一般請約者と競争せずにアパート分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制度だ。新婚夫婦・子どもの多い家庭・高齢者分譲など、支援項目が分かれている。国土交通部令‘住宅供給に関する規則’により、一般供給物量の10%以下を特別供給として配定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多文化特別供給もある。多文化家族も政策的配慮が必要な階層なので、政府がアパート分譲を受けられるよう

にしている。しかし多文化特別供給世帯数は通常2世帯程度なので競争率が高くなる。

同じ特別供給でも請約通帳が必要な場合と必要ない場合がある。

7月に公告される京畿道‘安城アヤンB-1ブロック公共分譲住宅’の場合、自治体の立ち退き住民、障がい者、国家有功者などは請約通帳がなくてもよい。

しかし多文化家族、北朝鮮離脱住民、10年以上服役軍人、除隊軍人、中小企業勤労者、公務員などは加入6ヶ月が経過して月納入を6回以上した請約通帳が必要だ。この条件だけ満していれば通帳の貯蓄額がいくらでも関係ない。

‘安城アヤンB-1ブロック公共分譲住宅’が多文化特別供給に求める条件は、家を持っていない無住宅であることと、配偶者と3年以上同じ住所での居住だ。

アパート当選を望む多文化家族は今からでも請約通帳に加入しておこう。

特別供給はアパート当選確立が高いだけで、アパート価格を割り引いたりはない。

そのため不動産景気が良くないときには敢えて特別供給でアパート分譲を受けることにはメリットがない。しかし現在のようにアパート価格が激しく高騰する時期には特別供給に挑戦してみるのもいいかもしれない。

<한글 기사 5면>

아키오 객원 기자

'Nữ giới người nước ngoài ôm nam giới người Hàn quốc' Hiệu ứng Chellinji là Bất hợp pháp

Đang đi trên đường nếu bạn bị một người đi đường lạ mặt ôm lấy mình thì bạn sẽ cảm thấy như thế nào ạ? Chắc hẳn là các bạn thấy rất bàng hoàng thậm chí là hoảng sợ đúng không ạ? Thời gian gần đây trên mạng xã hội đang lan truyền một đoạn Tiktok ghi lại cảnh một người nữ giới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hạy đến ôm lấy một nam giới trông giố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ây là hiệu ứng Chellinji đang gây nhiều tranh luận trên khắp các mạng xã hội. Đây là hiện tượng của một bộ phận nữ gi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au đó gây ra sự kiện trên. Người nam giới trong đoạn video rất bàng hoàng nên không biết phải làm như thế nào. Một số các bạn đọc đang lên án hành động này đó chính là 'Sang nước khác rồi mà các cô còn làm trò gì vậy?'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xem những trách nhiệm liên quan đến pháp luật của nhân vật chính trong đoạn video đó nhé.

◆ Ôm người khác một cách cưỡng chế là một dạng phạm tội

Khi ôm một người không hề quen biết họ thì đây không chỉ là hành động đùa giỡn mà hành động đó có thể bị kết thành một loại tội án. Ôm người khác một cách cưỡng chế được cho là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quấy rối tình dục. Người vi phạm sẽ bị phạt từ 10 năm hoặc phạt tiền từ 15 triệu won.

◆ Nữ giới người nước ngoài là nhân vật chính sẽ bị

xử phạt như thế nào?

'Ôm Chellinji' là một hiệu ứng thịnh hành của một bộ phận nữ gi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ối với nam giới người Hàn quốc. Nếu nạn nhân là nam giới báo sự việc này cho cảnh sát thì nữ giới này sẽ bị xử lý theo pháp luật của quốc gia nào?

Theo điều 2 bộ luật Hình sự "Theo chủ nghĩa của nước thuộc địa, tất cả người bản địa hay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hay lưu trú tại nước thuộc địa sẽ phải chấp hành luật của nước bản địa đó". Khác với chủ nghĩa của nước thuộc địa, chủ nghĩa người dân bản địa lại có những quy định căn cứ vào quốc tịch của công dân đó. Không cần biết người phạm tội đang lưu trú hay sinh sống tại quốc gia nào, tuy nhiên sẽ căn cứ vào quốc tịch của người đó để áp dụng luật pháp một cách phù hợp.

Luật hình sự của Hàn quốc đang áp dụng chế độ chủ nghĩa của nước thuộc địa, tuy nhiên có một số những trường hợp rất ít được áp dụng chế độ chủ nghĩa người bản địa. Điều này được hiểu đó chính là dù người phạm tội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hay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người đó đang sinh sống hoặc lưu trú trên lãnh thổ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thì người đó phả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àn quốc. Mặc dù người nữ giới được chúng ta đề cập có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i chăng nữa nhưng người đó đang ở tại lãnh thổ của Hàn quốc do

đó người này sẽ chịu sự trừng phạt của pháp luật Hàn quốc.

Sau khi có phán quyết là tổng giam hay ngồi tù, vv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ẽ bị đuổi về quốc gia của họ. Nhằm đảm bảo sự an toàn cho công dân trong nước cũng như sự an toàn về hành chính,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sẽ là cơ quan thi hành việc đuổi người nước ngoài phạm tội tại Hàn quốc về quốc gia của bản thân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Theo điều 46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bị đuổi về nước thì trong 5 năm tới sẽ không được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Kể cả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nữ giớ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thỏa thuận về mức phạt hay mức bồi thường với người bị hại hay được tòa án giảm nhẹ hình phạt đi chăng nữa thì cũng sẽ vẫn bị đuổi về nước. Đuổi về nước ở đây không mang ý nghĩa căn cứ vào mức nặng nhẹ của hình phạt mà việc phạm tội tại Hàn quốc gây mất trật tự trong xã hội và làm hỏng những ý nghĩa phong tục tốt đẹp trong xã hộ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sinh sống ở Hàn quốc, đối với các bạn nữ nếu có gặp thần tượng của mình thì cũng nên chỉ đứng xa và cổ vũ họ chứ không nên chạy đến và ôm hay động chạm vào họ để tránh những ảnh hưởng xấu đối với các bạn nhé!

강혜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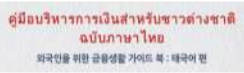
토포웨어 Hi Korea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5. นโยบายช่วยเหลือระหว่างการตั้งครรภ์ การคลอด และ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1 บัตรคุณมีเงินออม

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หรือเป็นผู้ถูกโยกย้าย การดูแลของผู้อพยพ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เกิดตั้งครรภ์ก็จะสามารถ 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ตั้งครรภ์ และการคลอดได้ โดย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5แสนวอน ต่อการตั้งครรภ์แต่ละครั้ง(กรณีที่เป็นลูกแฝดตั้งแต่สอง คนขึ้นไป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9แสนวอน) การขอบัตร คุณมีเงินออมทำได้โดยยื่น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ตั้งครรภ์ซึ่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ออกให้ไปยังที่สำนักงา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สาขาโยนหรือบริษัทตัวแทนจำหน่ายบัตร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ที่ได้รับ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ตั้งแต่ยื่นขอบัตรจนกระทั่ง 60 วัน หลังคลอด



5. 임신·출산·육아를 도와주는 제도

1 국민행복카드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이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명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90만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회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분만에 정일 후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บัตรคุณมีเงินออม 国民 행복카드



วิธีใช้บัตรคุณมีเงินออม 国民 행복카드 이용방법

การขอบัตรทำได้โดยยื่นคำร้องพร้อม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ตั้งครรภ์(สำนักงา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สาขาโยน, บริษัทตัวแทนจำหน่ายบัตร(BC, Sumsung, Lotte))—รับบัตร—ใช้จ่าย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ตั้งครรภ์และการคลอด <ที่มา : กองสวัสดิการอนามัย (www.mohw.go.kr)>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회사(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카드발급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시 이용 <출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บัตรอาอีเงินออม

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ที่มีบุตร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ที่อยู่ในวัยก่อนเข้าเรียนอายุ 0-5ปีบริบูรณ์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จากรัฐบาลและองค์กรปกครองส่วนท้องถิ่นได้ตามจำนวนเงินที่ระบุโดยไม่มีทั้งเงินระดับรายได้อ่อนหรือครอบครัว หากทำ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ด้วยตนเองที่ บ้านก็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 หากส่งลูกไปเข้าสถานรับเลี้ยงดูเด็ก เช่น โรงเรียนเด็กเล็ก ก็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ขอ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ลี้ยงดูได้เช่นกัน โดยเงินนี้จะต้องสมัครขอรับเงินค่าเลี้ยงดู, ค่าเทอม, ค่าอาหารเลี้ยงดู ฯลฯ ที่ว่าการกำหนัด/อำเภอ/หมู่บ้านในท้องถิ่น หรือสมัครผ่านอีเมลเพียงกร(www.bokjiro.

2 아이행복카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만 0~5세 이하의 한국국적을 가진 영유아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양육할 때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는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각 은행,

go.kr) สำหรับการสมัครขอ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ในกรณีที่ตั้งครรภ์ไปเข้าโรงเรียนเด็กเล็กหรือ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จำเป็นต้องทำบัตรอาอีเงินออมก่อน โดยไปติดต่อที่ธนาคารหรือบริษัทตัวแทนจำหน่ายบัตร หรือสมัครผ่านเว็บพอร์ทัลอา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www.childcare.go.kr) ยกเว้นผู้ที่ทำบัตรคุณมีเงินออม(เฉพาะบัตร BC และ Lotte เท่านั้น) อยู่แล้ว 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ทำบัตรอา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카드회사 및 지점을 방문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BC카드, 롯데카드에 한함)가 있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บัตรอาอีเงินออม 아이 행복카드

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าเลี้ยงดูเด็ก(ที่สถานรับเลี้ยงเด็ก), ค่าเล่าเรียน, ค่าเลี้ยงดูเด็ก(ที่บ้าน) <small>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내용</small>						
ประเภท 구분	ไม่ถึงขวบ 만 0세	1 ขวบ 만 1세	2 ขวบ 만 2세	3 ขวบ 만 3세	4 ขวบ 만 4세	5 ขวบ 만 5세
ค่าเลี้ยงดูเด็ก (ที่สถานรับเลี้ยงเด็ก) <small>보육료</small>	441,000วอน (แบบเต็มวัน)* 344,000วอน (แบบเลือกเวลา)** 441,000วอน(종일반) 344,000วอน(맞춤반)**	441,000วอน (แบบเต็มวัน)* 344,000วอน (แบบเลือกเวลา)** 441,000วอน(종일반) 344,000วอน(맞춤반)**	441,000วอน (แบบเต็มวัน)* 344,000วอน (แบบเลือกเวลา)** 441,000วอน(종일반) 344,000วอน(맞춤반)**	220,000วอน	220,000วอน	220,000วอน
ค่าเล่าเรียน <small>유아학비</small>			60,000วอน(รัฐบาล) 60,000วอน(공립) 220,000วอน(เอกชน) 220,000วอน(사립)	60,000วอน(รัฐบาล) 60,000วอน(공립) 220,000วอน(เอกชน) 220,000วอน(사립)	60,000วอน(รัฐบาล) 60,000วอน(공립) 220,000วอน(เอกชน) 220,000วอน(사립)	
ค่าเลี้ยงดูเด็ก (ที่บ้าน) <small>양육수당</small>	200,000วอน (น้อยกว่า12เดือน) 200,000원 (12개월 미만)	150,000วอน (น้อยกว่า24เดือน) 150,000원 (24개월 미만)	100,000วอน (น้อยกว่า36เดือน) 100,000원 (36개월 미만)	100,000วอน	100,000วอน	100,000วอน

(มาตรฐานปัจจุบัน ปี 2018) (2018년 현재 기준)

6.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หน่วยงาน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หากมีเบอร์ติดต่อหน่วยงานที่คอย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อย่างมากในยาม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หรือภาวะวิกฤติ หน่วยงานเหล่านี้หลายหน่วยงานจัดให้คำปรึกษาใน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จึงไม่ถือเป็นการเสียเวลาที่ลองใช้บริการในยามที่จำเป็น

6. 도움을 주는 기관 연락처

어려움을 겪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미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상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모국어에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 <small>제공서비스</small>	ชื่อหน่วยงาน <small>기관명</small>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small>전화번호</small>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พำนักและวีซ่า <small>체류, 비자 상담</small>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ข่าวสาร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small>외국인종합안내센터</small>	1345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ก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ปัญหา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ต่อสต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บริการคำปรึกษาประจำวัน <small>다문화 생활상담 / 이주여성 폭력상담 / 생활통역 서비스</small>	สายด่วน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ทางนรี (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ทุกวัน) <small>다누리콜센터(연중 무휴)</small>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สต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รุงโซล <small>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small>	1577-1366 02-733-0120
แจ้งเห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 <small>각종 범죄신고</small>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 <small>경찰청</small>	112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ประจำกรุงโซล / สามารถขอคำปรึกษาฟรีได้ <small>서울시 상담 / 외국인 통역상담 가능</small>	หาซั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small>다산콜센터</small> โซลโกลบอลเซ็นเตอร์ <small>서울글로벌센터</small>	120(+9) 02-2075-4180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เกี่ยวกับปัญหาการดำรงชีพเงินเดือน, การตกงาน/ การอบรม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คอมพิวเตอร์ <small>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임금 체불, 실업 등 상담 /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small>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small>외국인력지원센터</small>	1644-0644(กรุงโซล)(서울) 032-431-5757(อินชอน)(인천) 062-946-1199(คังจู)(경주) 055-338-2727(คิมแฮ) เป็นต้น (김해) 등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พื่อคัดลายปัญห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และนายจ้าง <small>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충해결 상담</small>	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small>외국인력상담센터</small>	1577-0071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บริโภค <small>소비생활 상담</small>	ให้คำปรึกษาแก่ผู้บริโภค <small>소비자상담센터</small>	1372
เหตุเพลิงไหม้ / ภัยพิบัติ / การ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เบื้องต้น / ข้อมูลโรงพยาบาล <small>화재 / 구조 / 응급의료 / 병원 정보</small>	ศูนย์รับแจ้งปัญห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119 <small>119안전신고센터</small>	119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ารเงิน <small>금융상담</small>	สายด่วนกองกำกับดูแลด้านการเงิน <small>금융감독원 콜센터</small>	1332

다문화가족 등 독서취약계층에 책 나눠요

경기도, 다문화 시설 등 책나눔 기관 100곳 1차 선정

경기도가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독서취약계층에 도서 및 독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책드림, 꿈드림’ 사업의 1차 선정 기관 100곳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다문화시설, 그룹홈 등 독서취약기관 2,697곳에 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업 1차 신청을 통해 131개 기관의 참여 의사를 접수했다. 이 중 심사기준에 따라 책나눔 희망기관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집할 2차 신청 등 연내 200곳 독서취약기관에 총 2만권의 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도서는 도서전문가가 선정한 도서목록집 ‘책드림, 꿈드림’ 수록 도서와 올해 추가로 어르신, 아동, 다문화 기관 이용자를 위해 구성한 큰글자도서, 다국어도서, 신간어린이도서 목록 등에서 기관 성격에 맞게 선별한다.

1차 선정 기관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책 보급뿐만 아니라 독후프로그램 지원도 이뤄진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독서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독서교육 강연과 책 놀이 특강도 개설된다.

기관별로 ‘책 놀이 키트’를 보급해 색깔 채우기 등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어려운 독서 환경에 있는 도민들이 이번 나눔 사업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책 나눔 사업을 통해 도내 160개 독서취약기관에 1만6,000권의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Пульгоги | 불고기



아가자난 아이다

Сегодня с татья посвя щается од ному из сам ых традици онных и ста рейших блю д Кореи. Хо чу поделить ся рецептом Пульгоги 불고기. Назв ание блюда дословно переводитс я как огненное мясо. Пульгоги бер ёт своё начало из далекого когурё. В ту эпоху блюдо называли мэччо к, что означает мясо жареное на в ертеле. А во времена чусона его н азывали нобиани, что означает то нко нарезанное мясо, и подавали пульгоги в богатых домах. Из выш е перечисленных названий блюда,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нешний вид п ульгоги даже если Вы ни когда его не пробовали. Это тонко нарезанн ое мясо, которое готовят на огне и ли углях. Но его так же можно приг отовить дома на сковороде. Изюм инка пульгоги в его сладко соевом соусе. Вариант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 оуса для пульгоги очень много. Кт о-то для сладкого вкуса добавляе т сахар, другие добавляют содову ю или кокаколу. Думаю, знакомясь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или культурой, Вы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попробов ать пульгоги. Это блюдо на стольк о вкусное и популярное среди ино странцев, что стало международн ым. Иностранцам нравится что пу льгоги не острый, и имеет пикантн ый сладкий соус. Пульгоги готовят из говядины, курицы или свинины. Поэтому выбираете мясо, которое Вам больше нравится и готовьте э 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блюдо у себя дом а.

Соус

- Коричневый сахар - 30гр
- Кухонное вино - 12мл
- Кукурузный сироп - 12гр

- Чеснок(измельчённый)- 20гр
 - Соевый соус - 50мл
 -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 12мл
 - Чёрный перец - щепотка
- Ингредиенты:
- Говядина(тонко нарезанная)-500гр
 - Репчатый лук -150гр
 - Зелёный лук - 80гр
 - Грибы(эноки) - 40гр
 - Красный острый перец - 10гр
 - Кунжут - чайная ложка
-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мешать все ингредиенты для с оуса. Зелёный и репчатый лук, кра сный острый перец нарезать и до бавить к мясу. Немного приперчит ь. Смешать соус с мясом и овоща ми. Жарить на среднем огне до го товности мяса. После приготовле ния посыпать пульгоги кунжутом. Подавать пульгоги с отварным ри сом и кимчхи.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 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역시 ‘불고 기’입니다. 불고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달콤하고 짭짤했던 맛에 정말 놀 랐던 기억이 납니다.

불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세 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 고기는 서울식 불고기 라는 것을 알 게 되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맛을 낼 수 있었어요.

달콤한 맛이 함께 있어,아이들에게 도 인기 만점인 메뉴가 될 거예요. 소스를 만들 때 비율만 잘 맞추어 따라하면 식당에서 먹는 그 불고기 맛 그대로 여러분의 저녁식사가 완 성 될 겁니다. 오늘은 ‘불고기’ 어떠 세요?



1탄

예비·신혼기 부부교육

신혼 뉴우스

대상 : 화성시 거주 예비신혼 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0커플

활동 일정	구분	활동 내용
1탄	06/26 (토) 14:00 ~ 18:00	재무 1. 재무관리 교육
	07/03 (토) 14:30 ~ 18:00	관계1 2. 서로 다른 우리(DISC 성격유형검사) 관계2 3. 신혼기 갈등과 대화법 행복한 관계 만들기
7/4 (일) ~ 7/12 (월)		문화 4. 향기 가득 우리 부부 (향초 만들기)

+ 3회기(재무 및 관계) 모두 참여해주신 커플에 한하여 문화 회기(향초만들기) 참여 제공!!

7/4 (일) ~ 7/12 (월)
*대면활동이며 코로나19로 2쌍씩 모여 진행됨.

*신혼뉴우스 2탄, 은 9월 중 운영 예정입니다.

장 소 각자 편안한 장소(비대면 Zoom 수업). 단, 커플이 한 공간에서 들기를 강추!

접수일정 6/7(월)-6/2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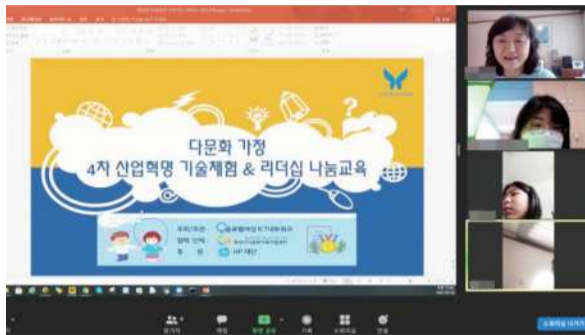
우선순위 1순위: 센터 신규 이용자
2순위: 3년 이내 본센터 신혼기 부부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커플

신청방법 구글폼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 가능!

문 의 ☎ 031-267-8785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혼뉴우스' 검색

다문화가정 자녀 다양한 고민, 함께 해결해요

화성건가다가, 성장지원 프로그램 ‘다(多)재다능한 아이(I)’ 진행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공부가 어렵거나(63.3%)’,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53.5%)’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만 13세 이상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민은 진로와 진학 취업(4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 또래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 처한 부적응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하고 안정감과 유대감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미래설계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청소년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2월까지 연중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다(多)재다능

한 아이유(IU)’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多)재다능한 아이유(IU)’ 사업 내 3개의 프로그램 중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1일간 진행되는 ‘다재다능한 아이’는 졸업기와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플랫폼(ZOOM, 카카오톡)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되며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스마트밴드 착용을 하고 21일간 졸업기를 하는 미션과 더불어 아두이노 코딩교육이 진행된다.

HP재단에서 후원하며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GWIN)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多)재다능한 아이유(IU)’ 사업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사회성 발달 집단 프로그램(추후예정-하반기)이며 세 번째 프로그램은 찾아가는미술치료 ‘아이유(IU)’이다. 송하성 기자

“한국 요리 배우며 소통하고 기쁨 얻어요”

화성건가다가,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진행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한국의 생활요리를 배우고 한국음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한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대면 요리 프로그램도 중단됐다. 이에 센터 측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한 요리재료를 키트로 제작해 화성시 4개(동, 남, 서, 북) 권역에서 각 가정에 요리키트를 직배송하여 요리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국 5년 이내 초기입국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이번에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모두 3개 반을 운영하며, 반별 3회씩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밑반찬 요리를 실습한 후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의사소통 기회를 얻고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생활안정 및 초기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外国人居民驾照取得法

在驾校考取比较方便

多文化家庭和外国劳动者中也有很多人拥有和驾驶汽车。特别是抚养子女的结婚移民女性，需要开车的情况将会增加。

驾驶机动车要取得驾照。驾驶执照是指驾驶汽车的人通过道路交通公团实施的学科考试、技能考试等获得的执照。机动车驾驶证的种类有三种：第一种类，第二种类，练习驾驶证。只是由于考试资格和考试类型根据汽车驾驶证种类会有所不同，因此，如果是初学者，就有必要提前了解想要获得的驾驶证考试，从而掌握考试类型。

汽车驾驶证

汽车驾驶考试是指，为检验驾驶员的驾驶能力和遵守交通法规及秩序意识的水平而实施的资格考试。

要考试先要决定要考哪种驾驶证。

第二种类驾驶证是驾驶10人以下的普通轿车所必需的。如果驾驶十人以上的小面包车或卡车，则应取得第一种类驾驶证。

第一种类许可大致可分为大型驾驶证，普通驾驶证，特殊驾驶证三种。一种类大型驾驶证可以驾驶小面包车、货车、建设机械等，一种类普通驾驶证可以驾驶定员15名以下的面包车、乘车定员12名以下的紧急汽车、12吨以下的货物汽车等。

第二种类驾驶证大体上可以分为普通和小型。持有第二种类普通驾驶证情况下，可以驾驶的车辆是普通轿车、乘车定员为10人以下的面包车等，第二种类小型驾驶证情况是超过125毫升的摩托车等。

取得第二种类驾驶证要比第一种类容易得多，因为汽车体积小，而且还可以选择自动挡。如果取得了第二种类自动驾驶证就不能驾驶手动档汽车。

尤其是在海外，手动档车辆更多的国家不少，取得国际驾驶证在海外滞留时要多加注意。

如果取得了第一种类驾驶证当然可以驾驶相当于第二种类驾驶证的所有车辆。

驾考共分4个阶段进行。第一阶段是体检，第二阶段是学科考试，第三阶段是场内技能考试，第四阶段是路考。学科考试种要达到60分以上，第二种类要达到70分以上。场内技能考试要达到80分(满分100分)，路考要达到70分以上才算合格。

实际上，多文化家庭独自进行这样的过程非常困难。最近国内的大部分人也都是是在驾驶专门学院取得资格证，因此多文化家庭也最好是在驾驶学院取得资格证。

<한글 기사 4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내내 131